피폭자 건강수첩이랑 다 가져갔는데 아버지 죽음에 해명 한마디 없고.

그 건강수첩이란 것도, 우리 아버지 생전에는 일본서 수당도 없었고 병원비만 겨우 지원이 됐어요. 요새같이 다달이 생활비도 없었고, 나온다 하는 거는 겨울 되면 꾸리한 담요 아버지 거 한 장, 할머니 거 한 장, 라면 한 박스, 쌀 한 포대기 이거 나오대. 할머니는 그나마 몇 달 못 타먹고 돌아가셔버렸고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는 원폭 장지비며 생계비며 다 나왔는데 그 전에는 하나도 없었어. 정말 합천군에서도 우리 집이 피해가 제일 많았는데 보상은 제일 못 받은 거라. 그래, 아버지 병원비 고스란히 집에서 다 부담하면서도 땅을 다 팔지언정 사람 살리는 데 보탤라 했는데…….

우리 아버지도 참 미련스러웠어요. 미련스러울라 해서 미련스런 게 아니고 촌에 살다보면 기침 좀 한다고 병원 안 가거든요, 생강 파뿌리 다려 먹고 말지. 그렇더라도 기침이 한 달 동안 안 낫는데 병원을 안 가셨으니, 우리가 알았을 때는 벌써 수술할 단계가 넘어있었어요. 글쎄, 왜 그리 병원을 안 가셨으까. 경제적인 것도 있었겠지마는 우리 큰고모 폐암으로 돌아가셨고 할머니까지 폐에 구멍이 나서 가셔놓으니, 아버지도 두려웠겠지요. 우리한테 이야기는 못하시고, 아마 두려우셨는가봐. 성치 않은 아들자식까지 자식들은 주렁주렁 눈앞에 두고 살림은 빠듯한데. 더 살아야 되는데, 살고 싶은데, 막상 병원에 가서 당신도 폐로 죽을 거라 하면 그 감당을 어째 할까, 두려우셨는가봐.

아버지…… 무골호인이었지요. 따끔하게 뭐라 할 땐 뭐라 해도 그런 부모가 없어요. 이리로 가면 빠져 죽는데, 우물이 하나 있어서, 저리로 둘러가면 사는데, 그래도 이리로 가시는 분이예요. 그만큼 곧은 성격이라. 아버지 본받고 살면 잘 살 수 안 있겠나 싶은 마음이 들어요.



## 고통은 나혼자 받으면 되지

우리 형제는 2남 2녀에 내가 맏인데, 남동생이 덩치는 산만 해도 지 나이를 아나, 집 주소를 아나, 합천 읍내만 나가도 집을 못 찾아와요. 그러니 항상 안타깝죠. 내 밑에 여동생도 속이 안 좋아서 병원에 다니는데 밥상 앞에만 가면 먹기는커녕 속 아프다고 몸을 꼬고. 또 다른 남동생은 간이 나빠서 병원에 검진하러 다니더니만 좀 그만한가, 어떤가. 거기는 동생보다도 자식이 문제라. 조카가 폐가 안 좋아서 태어나자마자 폐렴으로 내내 병원 생활을 했어요.

다 몸이 걱정스러워서 그렇지, 우리 형제는 아직까지 한번 싸워본 적이 없습니다. 일요일마다 촌에 모이면 진주 동생은 좀 잘사니까 즈그가 고기 사오고, 내하고 다른 동생은 입만 가져가고, 입만 가져가기 미안하면 동생이 맥주 한 병 사고, 울 엄마는 상추 가꿔놓은 거 뜯어오고. 나는 입만 가져가서 잘 구워먹고 앉아가 놀고.

그런데 내가 너무 없으니까 형제간들 오라 해도 어떤 때는 가기 싫고 그래요, 솔직히 말해서. 몸도 아프고 돈도 없고, 즈그들은 그리 생각 안하는데 내 자신이 자연히 거리감을 두게 되고 마음이 떨고 그렇네요. 엄마나 형제들이나, 다들 내가 제일 불쌍하다 하지요. 여동생은 내가 아프다 하면 병원에 갔다 왔나 어쨌나 내내 전화하고, 우리 남동생도 내 생각만 하면 마음이 천근만근이라 도와주고 싶지마는 즈그도 빠듯하니 그것도 안 되고. 만나서 이야기 하는 거 보면 다들 그런 마음 이예요. 나는 그게 또 싫어서요. 오늘 다 오는데 이러면, 갈 데 없어도 나 오늘 바쁜데 이러고요.

엄마한테나 형제간한테나 내 아프다 소리 한번 안 해봤습니다. 쓰러져 죽어도 나는 그런 소리 안 합니다. 해봐야 보태주지도 못할 거, 아프다 하는 내 맘이나 듣고 있는 그 맘이나 거기서 거기고. 고통은 나 혼자 받으면 되지, 뭐한다고 연락해가 아프다 할 필요가 있나 싶어서. 지금 같이 사는

식구들한테도 아프다 소리는 절대 안하고요. 자다가 다리가 아파서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있으면 있었지, 옆에 사람 신경 쓰이게 안 합니다.

## 우리 딸래미가, '엄마, 너무 아프다'

지금 같이 사는 우리 식구는 아저씨하고 내하고. 딸애는 휴학계 내서 등록금 번다고 구미에 가있고 아들은 학교 기숙사에 있어요.

아저씨가 양말 일을 하는데 요즘 섬유가 안 되니 한 달 수입이 백만 원도 안 될 때가 많아요. 옛날에는 나도 식당에서 일을 좀 했지마는 아프고 나서 전혀 일을 못하니까 아저씨 혼자서 어렵고, 어렵다고 도와줄 사람도 없고 해서 딸이 휴학까지 했지요.

우리 딸래미가 경찰경호행정학과를 다니는데 어려서부터 몸이 그래 약해요. 학교 다닐 때 잘 넘어지고. 내가 빈혈이 엄청 심하거든요. 얘가 그걸 닮았는가, 빈혈 때문에 체육 한번 못 해보고 아침조회 한번 못 해봤어요. 할라고만 하면 자빠져버리고. 요 앞에도 생리하는데 하혈을 막 하면서 '엄마, 너무 아프다' 이러더라고. 병원 데려갔더니만 빈혈이 너무 심하다면서 급한 김에 임산부 주는 약을 줘서 먹였어요. 지금은 그때보다는 나은데 빈혈이 딱 떨어지는 병이 아닌가봐. 대학 들어가서도 전공이 그렇다보니 유도 같은 거를 해야 되니까 고생했고, 엠티 가서도 기절해가 오질 않나. 즈그 삼촌이랑 이모부가 경찰복 입은 게 멋있어 보였는지 그 과를 갔는데 난 걱정이라요.

아들은 건강해요. 감기 걸리면 내가 끓여주는 김칫국 한 그릇 먹고 땀 푹 내고 일어나고. 그저 딸이 아팠다 하면 꼭 나같이 밥도 입에 못 대고 일주일씩 열흘씩 드러누워서 그렇지. 그래도, 내가 원폭 2세라는 거를 알고 또 지가 내랑 비슷하게 빈혈로 아픈데, 그런 표 안내고 엄마를 위로해 줄라 해요.



## 내가 수술한다 하면 우리 애들 고생시키는 일인데

몸은 옛날부터 항상 안 개운하고 머리가 무거웠어요. 날씨로 따지면 화창한 날씨가 없고 맨날 구름 낀 날이지요. 그러다 무단히 다리가, 예고도 없었어요. 그다지 아픈 통증이 있었다든지 그런 것도 없었고, 그냥 좀 우리하다 싶은 통증 정도였는데, 어디 다녀오다가 폭 주저앉았더니 다리가 딱 들어붙어 버리더라고. 아파서 손을 못 대겠는 거라.

처음에는 의자 타고 다니면서 밥하고 하다가 나중엔 너무 아프니까 화장실을 혼자 갈 수가 있나, 목욕을 혼자 할 수가 있나. 딸래미가 다 씻기고 그 고생을 다 했어요, 내 때문에.

그래 수술을 하게 됐어. 아버지 살아계실 적부터 아픈 거를, 아버지 그러고 계시니 수술을 못하다가 결국 한 다리까지 전이가 돼서, 안 아픈 다리만 너무 많이 쓰니까 전이가 돼버려서 2000년 5월 달에 수술을 했지요.

수술하고 나니 안 한거보다는 나은데 그것도 하고나니 만만찮대. 지켜야 할 거 해줘야 될 게 많은 건 고사하고, 넣어놓은 인조 뼈 수명이 10년에서 15년 사이라 많이 쓰면 7,8년 만에도 갈아야 된다는데, 그러니 내 평생에 두 번 아니면 한 번 갈아야 된단 말이잖아요.

수술하고 나서 처음에는 꼬박꼬박 검사를 받았어요. 그런데 한번 가고 두 번 가고, 돈이 많이 들더라고. 수술비에 치료비에 너무 부담이 되가 집을 월세로 안 옮겼습니까. 그래 한 3년을 검사를 안했어.

언제든 한 번 더 아프면 수술은 무슨 수술, 약이라도 먹고 죽어버리면 그만이지. 이제 내가 수술한다 하면 우리 애들 고생시키는 일인데 뭔 수술을 해. 애들 듣는 데도 그랬어. 2차 수술은 안한다, 그 고통은 다시 안 받는다. 쥐도 새도 모르게 약이나 한 개 묵고 죽어버리면 그만이지. 내 죽거든 뼈도 화장도 하지 말고 쓰레기 봉지 넣어 내버려라, 느그 돈 든다. 참

엄청스러워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는 검사도 안했어. 한번 검사하러 갔다하면 내 수술한 선생님 예약해야지, 엑스레이나 하나 찍으면 수납이야 뭐야, 돈이 엄청나더라고.

병원서 하는 말은, 인조 뼈라서 조금만 통증이 와도 바로 병원에 가야한다는데, 언제 그리 될랑가 겁이 나지요. 한발이라도 다니면 뼈가 닳으니까 그게 무서워서 막 돌아다니지도 못하고. 앉았다 섰다 하는 것도 무리가 온다 하니 그런 것도 못하지, 옆으로 좀 누울라면 항상 쿠션 한 개 끼워야 되지. 양 쪽에 다 남의 뼈를 넣어놓으니 비 올라하면 그만 내 다리가 아니고. 차라리 날씨가 더운 날은 낫는데 날씨가 꾸무리하면 찬물 똑 떨어뜨려도 누가 때리는 것처럼 얼마나 아픈지. 장마철 되면 제일 힘들고 겨울은 겨울대로 추워서 시려가지고 못 나가고. 엎어지면 뼈가 어긋나서 쑥 빠질까 싶어 또 겁나고.

그래도 되게 아파야 병원에 한번 가서 주사나 한대 맞고 물리치료 좀 받고 약 타 오지, 돈이 그만치 드는데 꾸준히 갈 수가 있습니까. 차라리 뼈가 얼마 닳았다 하는 거 모르다가 아프면 죽어버리고 말지. 웬만하면 참고, 정 안되면 맨소래담 사다가 발라 문지르고, 물파스도 뿌려봤다가 연고도 발라봤다가. 맨소래담 저게 좀 비싸 그렇지 제일 나아요. 죽 발라놓으면 당장은 시원하거든. 아플 때는 저거나 좀 짜서 바르고 그래요.

## 내가 왜 이리 아플까

자세한 거야 모르겠지마는, 수술했을 때 의사선생님이 그러대요, 내 나이 그때 서른넷인가 다섯인가 그랬는데 내 나이에 이런 병이 온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나중에 추적 60분에서 원폭 촬영하고 가니까 그제서야 그 영향이 내한테 안 미쳤겠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수술 당시에는 의사들도 이해를 못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대요. 내가 수술할 때



원폭이라는 걸 안 밝혀놓으니 요번에 촬영하면서 알았다 해. 내 생각에도, 우리 아버지 그늘을 나는 많이 받았어요. 내가 원체는 아버지를 많이 닮았지만도, 뼈 자체 약한 거 이런 거 보면 천상 아버지 닮았다고 봐야 되니까. 부모가 준 재산인데 타고난 지 운명을 우짜겠습니까.

그저 이제는 낮으로도 집에서 잘 안 나갑니다. 몸도 아프고, 몸이 아프니 마음도 그리 되고요. 자연히 사람들 모이는데 가기 싫어지고, 또 사람들 모이는 데 가면 다만 커피 한잔이라도 얻어 먹으면 다음에 내가 한번 사야 되니까. 안 얻어먹고 안 가는 게 제일 편한 거 같애서, 안 나갑니다. 집에 앉아가 뜨개질이나 살살 하고.

어떤 때는요, 우리 가족을 편하게 해줄라면 내가 없어져야 안 편해지겠나 싶은 마음이, 그런 마음이 들어요.

아픈 사람 오만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 일단 한국정부에 의료비랑 생계비를 요구하고 싶습니다

김형율 회장님 살아계실 때 하루가 멀다 하고 연락을 주고받고 하면서 환우회가 어떻게 돌아간다 하는 거를 대충 알았는데, 지금은 무슨 일이 중단이 된 건지 진행이 되는 건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어느 분한테 전화를 해야 어떤 설명을 들을 수 있는지 막막하고요. 이런 걸 하루 빨리 조치를 해서 2세환우 간담회를 가져야지. 그래서 새 회장님을 선출하고 연락을 서로서로 해야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 걸 알지요.

그렇게 환우회에서 일이 추진되면 일단 한국정부에 의료비랑 생계비를 요구하고 싶습니다. 우리 아버지처럼 2세들도 병원에 갈 때 카드가 있어서 좀 편해져야 안 되겠어요.

일본 정부에도 먹고 사는 거 까지는 요구를 해야 되고, 더 요구한다 하면 오갈 데 없는 2세들 들어가 살 수 있게끔 큰 대궐 같은 집이라도, 한 가

구씩은 안 주더래도 몇 가구 보태서 원룸 식으로 하든지, 그래 살아갈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고.

그럴라 하면 원폭 환우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돼야 되겠지요. 특별법 만들어야 된다는 거는 얘기 나온 게 늦어서 그렇지,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에 높은 분들이 국가 대 국가 싸움으로 일본에 힘을 행사해야 되는데 안 그러니까 문제가 되고, 밑에 힘없는 사람들은 천날 만날 국회를 상대로 이래야 되고.

우리가 국가를 상대로 원폭 피해를 가지고 요구하고 싸우고 있으면 자기들이 일본하고 싸우든 어쩌든 힘을 써야 될 건데, 그래야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 조금이라도 힘이 되는데, 이거는 뭐 우리는 죽어라고 뛰어다녀도 자기네는 가만 앉아가 손가락에 물 튕기고 있으니 뭐가 됩니까.

내 바램은 그것 밖에 없어요. 특별법 빨리 돼서 의료문제, 생계문제 해결 되는 거. 없는 사람도 먹고 살아야 되고, 병원도 가야 되고, 그러니 그게 제일 중요하죠. 다른 거는 뭐 있겠습니까.

내 몸이 만신이 아프고 괴로우니 내내 짜증만 나고, 그러니 이 사람한테 짜증내고 저 사람한테 짜증내고. 돈 번다고 휴학하고 밖에 나가있는 딸래미, 전화 오면 반갑게만 받아야 되는데, 짜증이 나니까…… 그래도 그게 성을 안내고 엄마, 와 짜증내노 하면, 나도 몰라 하고 인제는 아예 우리 엄마 몸이 많이 아픈갑다, 엄마 내한테라도 많이 짜증내라 이러거든. 자식이 뭔 죄가 있노. 어쨌든가 이게 빨리 진행이 되가지고 그럴 때는 주사라도 한 대 맞을 수 있어야지요. 주사야 지금도 맞으면 되지마는 병원에 갔다하면 돈이니까 가는 거부터 겁이 나잖아요. 몸이 그렇게 아플 때 주사 한 대가 사실 뭔 소용이 있습니까. 온 사지가 아픈데.



## 어머니 안해순씨의 기억

### 시가가 다 일본에 갔었는데

우리 아이 즈그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는 피폭 흉터가 많이 있었다, 찍힌 데. 기왓장이 떨어져가 맞았다 하는 거 같더라. 몸이 이런 데가 막 찍혀 갖고 흉터가 많이 있었는데. 우리 시어무이하고 시아바이는 버스정류장에, 거기 반장 일을 했다 하더라고. 거기 일을 하기 때문에 일찍 나가고, 우리 시누부 여덟살 묵은 사람, 아직 시체도 못 찾았거든, 거기는 국민학교 1학년이었으니까 학교 가고. 애들 아부지는 네 살 묵고. 우리 어무이하고 큰집 식구들하고 같이 있었는데, 뭣이 참 번개 치듯이 해가지고 맞았는데, 기왓장이 떨어져서 그랬다하는 거 같더라. 집이 찌그러져갖고, 집 찌그러진 밑에서 사람들이 나왔는갑더만. 학교 간 시누부는 우째 되버리고. 우리 시아바이는 거기서 뭐 맞아가 나중에 찾았다하고. 그때 비라고 오는 게 새까만 뭣 같이 왔다 하더라. 그라고나서 시아바이도 찾았다하대. 숨은 안 떨어져도 완전히 데어가지고, 화상을 입어가 껍데기 할랑 다 까졌다 하더라. 그래 근처 학교로 옮기니까 시아바이는 그만 돌아가셨지. 시누부는 아직 찾지도 못했고. 살았겠나? 내가 요번에 일본 가면 그거를 한번 내서 찾아볼까 싶어, 사진도 다 확대를 해놨거든.

시가가 다 일본에 갔었는데, 우선에 우리 시아바이가 총각 때 강제징용을 가 가지고 탄광에 일을 했다 하는 거 같더라고. 엄청 매도 맞고 배를 많이 곯렸다 그래. 돈도 쪼깨씩 주고. 그런게 어데 도망을 한 모양이지. 도망을 한다고 한 게 고만 히로시마라. 거기 가서 살다가 어른들이 결혼해야 된다고, 막 여기서 자꾸 연락이 돼가지고, 한국 나와 결혼해가 우째 할마이를 데리고 들어갔는갑대, 우리 시어머이를. 데리고 들어가서 가족 이루고 살았는거라. 살면서 그래 피폭을 맞았는갑더라.

첫 번에 강제징용 피할 때 그 길로 바로 피해서 집에 와버렸으면 죽지

도 안 할거고 이런 일도 안 없었겠나. 집으로 바로 안 오고, 빈손으로 우째 가겠노 싶어서 차비라도 벌어야 된다고 한 게 그만. 우리 어머이는 일본 말만 하면 숨쉬기 힘든 사람이 더 가슴이 뛰고, 몸을 덜덜 떨면서 말도 못해. 너무 많이 당했어. 그 말만 하면 벌벌 떨어, 사람이 돌아가실 때까지.

시아바이 죽어서 장례식 치르고 어데 화장했다 하더라. 무슨 절에 갖다놨대. 그 절 옆에 언덕 밑에 천막을 쳐서 식구들이 좀 있었대. 식구들 둘이는 죽어버리고 애 셋 데리고 우리 시집에 큰어머이하고 있었지. 갈 집이 없다 아니가. 있었는데 깡패부대라 해야 되나, 거러지 부대가, 일본 사람들이 어느 날 밤에 들어왔더란다. 들어와가지고 여섯 살 시누부, 우리 어머이, 우리 백모하고, 사촌 시누하고 또 막 당했는 거라. 밤에 불이 있나, 뭐가 있나. 아무 것도 없었대. 초 심지 불 켜고 이래 있었단다, 전기도 없고. 그러니 사람도 확실히 보지도 못하고 막 난리를 치고 고함을 지르고…… 여섯 살 묵었던 시누부가 한국 나와가지고 서른여덟 살에 죽어버렸거든. 죽었는데 그때 거기서 방에서 놀랬던 모양이라. 놀래가지고 평생 몸이 빼짝 말라가지고 살았던 거라. 한국에 와서 처녀가 결혼을 안 할 수도 없다 아니가. 그래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보니 신랑이 딱 보더니만 안 데리고 살라하는 거라. 안 데리고 살라 하는데 어쩔 수 있나, 밀려 나왔지. 친정에 있다가 서른여덟 살에 돌아가셨어. 우리 아들도 지금 서른여덟이지만, 서른여덟 그 나이에 고만 돌아가셔버리고.

한국 나온 거는 그해 동짓달에 춥을 때 나왔다 하더라. 춥었는데 도저히 거기서 불안해 못 있어. 나와서도 묵고 살 게 없어서, 한국도 그 당시 못 살았다 아니가. 원폭 나온 사람들은 빈 손 나왔는데 한국에 식구들도 다 못 사니 먹여 살릴 수도 없다 아니가. 그러니 우리 어머이 참 삼남매 데리고 나와서, 우리 영감도 고생 말도 못하게 했어. 고생 고생 하다가



성공도 한번 못하고 일찍 죽어버렸제. 원자탄 맞은 사람 오래 살질 못해.

# 진짜, 아픈 게 겁이 나. 살아가는 게

조 명 자

2005년 6월 28일 통영 자택에서 조명자 씨와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조명자 씨는 47세로 십수 년 전부터 재발성 류마티즘과 베체트씨 병을 앓고 있으며 현재 기혼으로 2남 1녀를 두었다. 피폭자는 부친(조차봉)이고 형제 중 피폭 당시에 있었던 두 명을 포함해 세 사람이 건강상의 문제를 보였다. 본인의 병에 뚜렷한 치료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막연히 종합검진을 희망하지만 경제적 이유로 하지 못한다. 작은 딸이 베체트씨 병과 같은 증상을 보이고 있으나 아직 정확한 검사는 받지 않았다.

## 아버지 평생을 작대기 짚고 살았는데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신지 12,3년 됐는데, 지금 살아계셨으면 한 백 살이나 백 살 넘었나 모르겠네. 그런게 피폭 맞을 당시 연세는 잘 모르겠어. 거기서 우리 엄마 말고 큰어머니랑 살고 계셨다 한게 그래 알지. 그 때 큰어머니한테 낳은 언니 두 분이 벌써 있었어. 피폭 맞고 큰어머니는 거기서 돌아가셨고 아버지가 언니들 데리고 나와가 우리 엄마를 만났지.

아버지 살아 계실 적에, 글쎄 무슨 병인지는 모르겠는데 만날 만신에 아프고 다리를 이래 절고 다니고, 뭐 그러다가 돌아가셨어. 평생을 그래 살다 돌아가셨어요. 일본서 피폭 맞을 때 화상을 입어가지고, 온 다리를. 그래 피부뿐이 아니고 뼈 속까지 다쳤나봐, 항상 다리를 절면서 작대기 짚고

다니고 그래 사셨어요. 우리는 절고 다니시는 거 밖에 못 봤는데 일본서 태어난 언니 둘이는 아버지 다리에서 구더기가 나와가 잡아내고 그런 걸 봤다 하더라고. 구더기가 끓어가 언니들이 막 잡아내고 그랬다 하더라고, 그 당시에.

언니들이 아버지가 전에 수술도 하셨다 해요. 뼈가 부러졌는가 어쨌는가, 다리에 쇠를 걸고, 그래 겨우 절면서라도 다니셨는 갑드라고. 테레비 많이 나왔어, 우리 아버지는. 합천 가도 사람들이 다 기억을 할거라.

아버지 평생을 작대기 짚고 병원 다니셨는데 그 때는 건강수첩인가 뭔가도 없었고 그러니 치료비 부담은 다 우리가 한 거지. 그 때는 보상 같은 거 전혀 말도 없었어요. 지금이야 언니들한테 건강수첩이 나왔는가 어쨌는가 아무튼 연금을 받는갑든데.

하여튼 간에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기억은, 다리를 보면 뱀 허물 벗겨진 거 맹키로 허여이, 온 다리가…… 일도 하도 못 하셨지. 사는 거는 우리 엄마하고, 다른 식구들이 겨우 촌에서 풀칠하고. 병원을 다니셨어도 형편이 그러니 사실 아버지 치료도 돈 때문에 많이 접었고요.

지금 내가 몸이 안 좋으니 아버지 원망도 있지마는 우리 아버지 가엾은 분이라. 피폭 때 일본서 언니 두 분 말고 아들이 하난가 둘인가 있었는데 아버지가 다리 화상 입고 억지로 겨우겨우 집에 가보니까 온 집에 불이 다 났는데 그 안에서 아들이 나오지를 못하고 일본말로 아버지를 부르느라고 오까상, 오까상…… 결국 아버지 눈앞에서 그래 됐어요.

일본서 나온 언니 둘 중에 큰언니는 평생을 물을 못 넘겨. 만날 으으 하면서, 그래 돌아가셨어. 작은언니는 다리가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지금도 자꾸 병원에 다니고. 우리 엄마가 낳은 형제가 오빠, 언니, 남동생이 있는데 우리 언니가 다리가 좀 아파서 자꾸 물을 뺀다 하고. 그 중에 내가 제일 건강이 안 좋지.



## 내 몸에 병이 이게 희귀한 병이라

재발성 류마티즘이란 게 류마티스 관절염의 한 아형이다, 비슷한 유형이다 그러던데. 아픈 게 온 몸을 돌아다녀. 여기가 아팠다, 저기가 아팠다 하면서. 설 아랫 날에도 밤중에 열두시나 한시 두시 됐나, 갑자기 여기 어깨가 부어가지고 얼마나 울었는지……. 밤새도록 땅을 치고 울면서 엄마, 엄마…… 내가 그 밤에 오죽하면 엄마한테 전화를 했겠나. 내가 다른 말도 못하고 엄마, 엄마 하니까 울엄마가 야야, 왜 그렇나, 그래도 그냥 울면서.

이 관절염이 재발성인게 온 몸에 돌아다니면서 여기도 붙었가가 저기도 붙었다가, 아무데나 혈관을 타고 다니면서 재발을 해서 염증을 일으키는 희귀병이라. 그래 이래 다리도 완전 휘어버리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하지. 오십 몇 살 되면 더 안 하겠나. 대학병원 교수님한테 물으면 대답을 피하지마는, 자기들도 한국에 의사들 다 해도 이 병 원인을 모른다 한께, 이게 희귀병이고 평생 낫을 수 없는 병인 거라.

약을 안 먹으면 안 되는데 먹어도 치료는 안 되고. 약 먹은 지 한 11년 됐는데 그 전에 예사로 여기고 약 안 먹고 3,4년 지나갔어. 처음에는 몰랐다가 병이 급해지니까 병원에 여기 가고 저기 가고.

베체트씨병도 이 관절염이랑 같이 따라다니면서 생기는 병인데 이것도 희귀병이지. 입이 헐고 밑에도 헐고. 나 약 안 먹으며는 헐고 죽는다, 고마. 밥도 못 먹는다. 밑에 헌다 하는 거는 오줌 누는 데하고 자궁이 빨갛게 헌다 말이지. 이 병이 원래 그렇다 하더라고.

약을 수없이 먹으니까 위장도 안 좋을 뿐더러 지금 자궁도 안 좋아서 산부인과 약을 먹는데. 약을 먹으니까 자꾸 다른 병이, 감기가 들어도 이 약을 뗄 수가 없거든요. 이 약도 먹어야 되지, 감기약도 먹어야 되지. 그래

먹고 나면 속이 타고, 마 속이 쓰려.

약을 하도 먹어서 내시경을 해보면 만성위염에 위궤양에. 근데 만성위염 약을 먹지도 못해. 이 약을 먹으니까.

자궁 쪽은 혹이 뭐가 생겼는 갑든데, 이번 달만 약을 먹어보고 조직검사를 또 해보자 이러더라만. 자궁이 자꾸 두터워지고 생리가 가닥이 지게 나오고 빈혈도 심하고요. 자꾸 빈혈수치가 떨어지고.

자궁 안 좋은지는 2,3년 됐는데 이래 심해진 거는 작년부터고. 큰 병원 가서 검사를 한번 해야 되는데 동아대 병원 가서 검사를 해본께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빈혈수치가 저번에는 9.4까지 떨어져 버려가 그놈을 올릴 거라고 약을 얼마나 먹었는지.

이제 약이라 하면 자다가도 먹기 싫다, 죽기보다 더 싫다, 나는.

팔도 이래 못쓰고, 안 아픈 데가 없다, 뼈가. 밤 되면 더 아프고 멀쩡하다가도 쑤시고 아프고 이런께 사람이 못 산다. 장마철에 더 아프고 겨울 되면 더 아프고, 뼈가 아파, 지금.

손목이 안 쥐어져. 주사를 하도 맞아서 되게 아프고 붓고 손을 이래 못 움직여. 그래 저번에는 가서 진통제 주사를 한대 맞았는데 자꾸 맞으면 안 좋다고 맞지 말라 하더라고. 지금도 맞으러가기 직전이지. 손목이 안 쥐어지는데 뭐.

수술도 어깨가 워낙 아파서 MRI 찍어보니까 그 당시만 해도 50만원 주라 하드나, 그래 해서, 하도 돈이 많이 든께 수술 엄두도 못 내고. 우리 아저씨도 위암수술해서 집에 놀고 있는데 내 아프다 소리 할 수도 없고. 수술하면 낫는 보장도 없고.

병원 다니는 거는 갈 때는 많이 가도 어지간하면 아파도 참는다. 부산



여기 가는 것만 해도 차비만 2만원 더 들지, 약 값만 해도 6만원 더 드나 그렇지, 가면 10만원이다. 검사한다 하면 10만원 넘고 그래.

정밀검사를 해보고 싶은데 아이들 학교 가지 그러니 돈이 너무 많이 든다. 통원치료는 물리치료 안 가본 데가 없어서, 아저씨 모르게도 가고. 어디 침 맞는 데 좋다 하면 진주까지 부산까지 안 간 데가 없다야, 말 못 하고. 그래도 별 수가 없어. 평생 내 죽을 때까지 가는 거지, 이거는 낫는 병이 아니라요.

오죽하면 내가 죽어버리면 좋겠나, 고마 죽어버리면 좋겠나, 땅을 치고 안 울겠나.

## 아프다 소리 절대 남 듣는 데 안 한다

내 몸이 이런 거는 부모한테 타고 나서 그렇지 싶어. 만날 원망한다야.

주위에 사람들 다 봐도 나같이 이런 사람 없고. 내 아파도 보기는 멀쩡하지, 아프다 소리 절대 남 듣는 데 안 한다. 애들도 지장이 많다 아닙니까. 결혼하는 데도 지장이 많고. 요즘은 안 그래도 얼마나 따지는데. 그러니 일체 아프다 소리 부모형제 외에는 안 하고.

처음에 아플 때는 이런 생각도 안했는데 안 낫으니까, 갈수록 더 하고 안 낫으니까, 한 십년 전부터는 이게 피폭 탓이구나…….

형편도 어려운데 아무 것도 못하고 만날 이래 노는데, 건강이 따라주며는 우리 5학년짜리 늦둥이 학원비나 보탤 건데. 이래 만날 묵고 놀고 아프다하니 아파도 아픈 소리 입에도 못 낸다.

남편이 암 수술 받은 몸으로 용달일 해서 꾸리는데 수입이 어디 있습니까. 요새 일도 없어가 만날 놀고. 내 손목 관절 이것만 없어도 걸레질이라도 할 건데. 아프지만 않으면 뭘 해도 하지. 우두커니 먹고 노는 사람 있

나, 더군다나 통영에.

그러니 오죽 답답해 엄마한테 전화를 하며는 엄마가, 내가 죽어야 되는데, 니 아픈 거 다 지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만날 그란다. 아픈 이야기 부모한테 하면 안 되는데, 부모 가슴 아픈 거 알면서도, 하면 안 되는 건데 성나면 한다, 그만.

진짜, 아픈 게 겁이 나, 살아가는 게…….

형제들한테도 남한테 말하며는 남사스러우니까 남한테는 못해도 언니 오빠 동생한테 죽겠다 이야기 하고. 남들은 다 길가에 걸어 다니고 안 아프고 잘 먹고 잘 사는데 내만 왜 이렇노 싶어서…….

## 유전 될까 싶어서 제일 겁난다야

우리 작은 딸이 꼭 내 닮은 거 같이 입 안이 헐고 그래요. 나랑 닮을까 싶어 병원에 물어보니 동아대 교수님이 한번 데려와 보라 이러더만, 가 보지를 못했어요. 병원비도 그렇지마는 가기가 무서워서.

애들한테 그럴까 싶어서 겁난다, 내가. 유전 될까 싶어서 제일 겁난다야. 다른 거는, 차라리 내 아픈 거라도 겁이 하나도 안 나는데 그게 제일 겁난다야.

딸애는 내가 원폭 2세라는 거는 알아도 유전이다 뭐다 이런 거를 아직 모르지. 그런 이야기 하면, 안 그렇나. 신랑한테도 자꾸 이런 소리하며는 싫다 안 합니까. 병이 있는 거 싫다 안 합니까.



## 내가 원폭 2세로 이래 살면서 바라는 거는

원폭 2세라고 환우회 가입을 하기는 했는데 한번 가서 사람들 만나보지도 안했어요. 테레비 나오고 그런 거는 싫어서. 가족들도 환우회야 찬성이지마는 안 그렇습니까, 찬성을 해도 테레비 나오는 거는 싫다야. 괜히 애들 지장되고.

내가 원폭 2세로 이래 살면서 바라는 거는 앞으로 정부가 병원에든지 뭐든지 보상을 해줬으면 하는 거.

일본정부도 그렇고. 2세들 병원도 자유롭게 부담 안 받고 다닐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때도 평생을 병원 다니면서 보상 하나 못 받았는데, 우리들 치료 될 수 있도록, 고마 종합병원에 가서 종합 진찰이라도 한번 받아보도록 했으면 그래 해줬으면 좋겠어, 연금도 받고.

나 병원에 다닌지가 서른 대여섯 부턴데 약을 먹으면 낫아야 될 건데 아프고. 안 먹으면 온 만신에 아파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이제는 심정이 죽고 싶은 마음이라.

딸한테까지 내려간다 하면…… 그 어떻게 하겠노야. 2세들 보상이나 좀 받았으면 좋겠다.

# 정부에서 약이라도 제대로 지어먹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최 정 식

6월 18일, 최정식씨를 만나기 위해서 아침 일찍부터 길을 나섰다. 모친(이일갑, 67세)이 원폭피해자이며, 최정식씨는 1962년생으로 2남 2녀 중 첫째로 태어났다. 오랫동안 피부병으로 고생하고 있지만 뚜렷한 병명도 알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병원 치료를 해도 별 차도가 없어 고민하고 있다. 최정식씨의 동생들도 피부병으로 고생하고 있고 결혼한 동생들의 경우, 자식들까지 피부병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한다. 최정식씨는 결혼을 했다가 이혼한 후에는 어머니와 함께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다. 아버지는 일찍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 살림살이는 그리 넉넉하지 않은데, 이를 딱하게 여긴 최정식씨의 삼촌이 집을 새로 지어주어 현재의 새집을 장만하게 되었다고 한다. 농사철이라 바쁜 중에도 두 모자는 인터뷰를 위해 시간을 내 주었다. 인터뷰는 거실에서 이루어졌다.

## 늘 아픈 동생들

아버님은 교통사고로 일찍 돌아가셨어요. 나는 결혼했다가 이혼하고 지금은 어머니와 둘이 농사일하고 있어요. 큰 형은 돌아가신 큰어머니 아들이고, 우리 어머니가 낳은 형제는 2남 2녀고 제가 맏이죠. 저도 늘 몸이 아

파서 고생하는데, 서울에 있는 동생도 아프고. 인자 조카들이 피부가 안 좋아요. 조카들, 애들까지도 그렇고. 여동생도 해마다 몸이 안 좋다, 피부가 간지럽다 그라고. 막내 머스마도 계속 몸도 아프다고 그러더라구요.

최정식씨의 어머니* : 정식이 밑에 딸 둘이 쌍둥이라예. 하나는 거제도 있고 하나는 서울 있고. 또 막내아들은 전북고창에 살고.

서울딸은 진짜 몸이 안좋아요. 피부가 굉장히 안 좋아요. 우리 아들도 피부…… 몸 보도 못해요. 피부가 안 좋고. 거제도 딸은 몸이 참 이래 아프다고 해요. 온 만신이 아프다캐. 이상하제. 전신에 몸이 안 좋아예. 손자가 온데 피부가 그렇고. 서울 딸도 온데 피부가 마 안좋고. 그라고 지금 내(계속) 피부약 먹고 있어.

병원에 가면 증세가 나타나지도 않고. 자세히 모른다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처음에는 원폭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지금 봉께네 원폭2세는 그래 다 몸이 안 좋대요. 서울에 동생도 2세들이 그렇게 몸이 안 좋대요. 큰딸은 등신이 되삣고, 말도 몬하고 그렇고. 아들 하나는 항상 기침을 해요. 폐가 안 좋은가 어쨌는가. 부산에 죽은 형제(김형율씨를 말함)맹크로. 부산 죽은 형제도 폐가 안좋지, 그지?

## 어려워도 동생들에게 도와달라는 말을 못해요

도움을 받을 수도 없는 일이고 스스로 해야 될 일인데 뭐.

형제들끼리는 다 서로 만나면 서로 웃고 그냥 잘 지내고 있는 중이에요. 각자가 저거 먹고 살려고 몸부림 치고 해샀는데 도와돌라 소리는 몬하고. 그렇께네 인자 저거 각자 따로 살다 보니까 그 애들 교육도 시켜야 되고 그런 의무도 있고 하니께 우리도 바라지도 못해요, 실제로. 우리가 둘이

*최정식씨 어머니의 증언은 고딕체로 표기하였다.



촌에 있으면서 스스로 우리 둘이 해야 되고 하는데 참 힘들어요. 보통 일도 아니고. 그렇다고 남보다 하지도 못하는 일들도 얼마나 많은지. 엄청나게 많아요.

동생들도 그렇고 집에서도 그렇고 서로 잘해주기는 잘해줘요, 전부다. 각자 명절때 한번씩 휴가때 서로 한번씩 오면은 서로 잘해주고 하니까. 서로 만나면 약 지무라고 좀 주기야 주지만은. 그래도 서로 잘 지내요.

## 온 몸이 다 아파서 늘 약을 먹고 있어요

저는 온 몸이 다 아파가지고 독한 약을 계속 고정적으로 일주일에 두 번씩 사러 가니까요. 한번 나갔다 하면 2500원 들거든요, 돈으로 따진다면요. 이틀분을 사가 와가지고 하루 한 봉지씩 먹어야 내가 들에 나가서 활동을 할 수 있어요. 안 그라면 온 만신이 팍팍하게 아파서 활동을 못해요. 먹고 나야 내가 운동을 하든지 산에 바람쐬러 가든지 활동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계속 약 먹고 있어요.

온몸이 다 아프고 어깨가 아프거든요. 어깨가 아파서 쉽게 말하면 온 몸 살약을…… 몸이 빨리 풀릴 수 있도록, 활동할 수 있도록 독한 약을 지어도라 카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한봉지씩 계속 먹는 편이라예. 병은 아직 확실히 알지는 몬하는데. 일을 너무 무리해서 그런지 확실히 잘 모르겠어요.

작년에 국가인권위에서 조사한다고 건강검진을 했었는데 그때 결과가 간이 좀 나쁘고 병이 여러 가지 있는갑더라구요. 그 종이는 어딨는가 찾아보지는 못하겠는데. 내가 술을 종종 먹기 때문에 술만 좀 금하면 좀 괜찮은 걸로 알고 있거등요, 술만 좀 적게 먹으면. 촌에 이래 있다 보면 술을 한잔씩 안 하고는 안되거든, 실제로. 그래 먹고 나면 자체가 번지는 모양

이라예. 그래노니께 아프고 아프고 일이 터지는 모양이라요, 몸 자체가요.

머리도 좀 혹 가다가 한번씩 아프고. 피부가 혹이 조금 조금씩 앞에 가슴에 조금 조금씩 그것도 되게 무리하게 활동하면 불룩불룩.

피부가 보도 몬해요. 피부가. 머리에 뽀드락지가 되가지고 온 팔에고 뭐시고 어릴 때부터 나가지고 그래가꼬 돈을 내가 마이 썼어요. 지금 머리가 다 빠져서 머리가 없잖아요, 독한 약을 먹이싸서.

얘는 되게 집에 돈이 없어요. 집도 야 삼촌이 지어줘서 살아요. 돈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야는 병원에 갈라카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병원도 자주 못가고. 대개 급할 때는 병원가고 그래예.

지금 머리는 나샀는데. 옛날에는 머리에 부스럼 부한 그게. 금새 머리를 감고 나면 또 금새금새 또 부한 게 또 있어. 부한 게 끝이 없는 거라. 약을 지묵고 좋다카는 약을 다 지묵고 나니까 그래서 머리는 100프로 다 나았는데. 혹 가다가 한번씩 머리가 종종 아프고 머리가 숱이 없다는 이건데. 시중에 나가면 머리가 숱이 없으니까 나이를 한 60까지 보는 기라. 다른 사람들이 내 나이를 60까지 보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어예.

아파도 어머니한테 아프다는 얘기는 안하죠. 하지도 안해요. 살짝 모르게 내 혼자 가서 약 지묵고 고마 속 풀고 넘어가고 그래요. 그렇다고 내가 엄마한테 얘기한다고 누가 도와줄 사람도 없을끼고. 스스로 아프면 아픈 대로 약이나 지묵고 바람 씨러 나가고 그래요. 그게 젤 낫죠. 아프다 아프다 부탁해봤자 되도 안하고 스스로 그냥 넘어가야 되지 우짜겠는교?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거죠.



## 피부병이 너무 심해 나병환자들 약도 먹였어요

머리에 부시럼 때문에 큰 병원 갈라카다가 큰 병원 가믄 돈이 문제 아닙니까. 그래 큰 병원도 못 가고, 그때는 대구 피부과병원 갈 줄도 몰랐고. 그냥 인제 저 나병 환자들 안 있습니까, 아주 나쁜 환자들. 그 환자들 마을에 가가꼬. 내가 처음 가니까 무섭더라꼬, 그런 환자들만 사는 마을로 강께네. 그래 그 약을 막…… 보도 몬했어. 팔이고 머리고 부스럼이 되가지고 있어가지고. 그래 그 약을 독한 걸 멕이니께네 마 야가 키가 안 크더만. 저거 반에서 키가 제일 크고 했는데. 그 약을 먹고 약이 얼마나 독했는지 키가 탁 안 크고 이래 되삐더라고. 키도 안 크고 머리가 저래 하나도 없어지삐고. 부시럼은 나샀는데 고마 머리가 저래 하나도 없어지삐더라꼬. 안 나사가 애를 뭇어. 머리에 귀신맹크로 허여 해가.

얘가 어릴 때 말을 올케 몬했어요, 시(혀)가 붙어가꼬. 놔 놓고 낭께네 시가 여기 딱 붙었어. 그라니까네 학교도 느까 드갔어요, 말을 몬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대구 동산병원에 가서 입원을 시켰어요. 입원을 시키가지고 수술 한 번 했어요. 수술을 하고 아홉 살 물 때 학교를 보냈어요.

## 어른들이 아프니까 자식들도 아픈 게 아닌가

어른들이 인자 아프니까 또 자식들도 따라가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그러니까 나도 어디 공사장 같은 데 돈 벌러 나가고 싶어도 남들처럼 내가 일을 못해요. 내가 실지로 사소한 거나 좀 하까. 힘든 일은, 무리한 일은 못하거든요.

## 내 올케들은 우리 정식이 텔레비전에 내는 거 싫어해요

우리 딸네들이 저렇게 몸이 안 좋아도 원폭에 대해서는 우리가 입밖에 뻥긋도 안했어요. 좋은 것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지금 테레비 내는 것도 지금 우리 최정식 텔레비전 내는 것도 형제들이 억시리 안좋아해요. '왜 나쁜 그런 거를 폭로를 하냐', '앞으로 우리 2세들, 까닥하면 결혼 안한 2세들은 결혼도 몬합니다' 그카고 있어요.

우리 딸네들은 인자 뭐 저거 오빠 몸이 안 좋다 카는거 그런 걸 혜택을 봐야 된다는 걸 알고 괜않은데. 그 인자 우리 또 외손자들도 한둘이 있어요, 외손자도. 그래서 딸한테도 절대 그런 소리 내가 안해요. 원폭에 대해서든, 뭐 몸 안좋다 소리든 딱 감추고 말 안합니다. 사우(사위)들이 싫어할까봐 그런 소리는 딱 감추고 말을 안합니다. 사우들은 안죽까지 확실하게 그래서 그렇다는 거를 확실하게는 몰라요. 우리가 절대 말을 안하잖아요. 그래가꼬 처음에는 테레비 나오고 하는 거는 사우들 직장 다니고 항께네 그런 거 상세하게 잘 모르잖아요. 상세하게 우리가 이야기를 안하기 때문에.

우리 남동생들이 지금 다 잘돼가 있어요. 남동생들이 잘돼가 있응께네 '아, 누나 왜 최정식이를 테레비에 내냐? 그거 참 안좋은 겁니다' '우리 정식이가 무슨 혜택이라도 볼까 싶어서 몸도 안 좋고 그래서 내가 테레비를 냈다' 그러니까 그러면 진짜 우리 올케들이 하는 말이 뭐라크는게 아이라, '어머니나 아버님이 원폭피해자고, 원폭피해 2세들이 안좋다카는 걸 우리가 진작 알았더라면 우리가 여기 우리 동생들 이름을 밝히면서 결혼을 안했다'고 막 그러면서 머라커더라꼬. 그래 '마 이왕 이렇게 된거 어쩔 수 있냐. 너거 자녀들은 안 그렇겠지' 인자 이러쿠고 지금 있어요.

우리 올케들이 되게 싫어하고 있어요. 우리 자녀들 앞으로 할머니가



원폭피해장께네 그래 마 다 그 영향이 안 비치겠나 하면서. 앞으로 우리 결혼하기 힘들다고 하면서 '테레비 좀 내지 마세요' 하더라고. 그렇지만은 '우리 최정식이는 몸이 안좋기 때문에 테레비에 좀 내가지고 앞으로 혜택을 좀 봐야한다. 그래 뭐 너거 자녀들 그타고 해서 결혼 못할 일 있나 괜찮다' 이러카고 있어.

## 농사를 짓지만 별로 남는 것도 없어요

지금은 뭐 밭농사, 벼농사 그런 거 밖에 안하고 있어요.

촌에서 나같은 경우에는, 우리 집 같은 경우는 크게 돈을 얼마 얼마 번다 그게 없거든요. 인제 뭐 농사지봤자 일년에 마이 해봤자 한 200정도 바라보며 할까? 200만원 수입 오른다캐도 집에 사소하게 뭐 약이나 좀 지묵고 이러고저러고 하면 돈 남는 거도 별로 없어요. 일꾼 삯 띠고, 농사 자재 같은 거 사고 하면 빡빡해요, 그것도.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과거에는 도자기 회사에 근무하다가 회사가 부도나는 바람에 촌에 들어와 가지고 계속 집에 일을 거들고 있어요. 그 당시에만 하더라도 도자기 계통에 근무하면 보통 마 73만원 정도 월급 생활을 하고 있었지.

벼도 우리는 쪼끔삐 몬하고, 일을 몬항께네. 인자 전부 나무(남의) 녹을 들이가꼬. 딴 사람들이 모 심어서 그래주면 짓고. 밤 쪼깨 있는 거 그거, 밤 그거는 돈 쪼깨삐 몬해. 작년에 돈 몇 만원하고. 그거 가지고 용돈도 안된다캉께네.

야가 도자기 회사에 댕기도 기술도 없고. 쪼깨 하다가 놀기삼아 슬슬 댕기다가 내가 수술하고 나서는 몸이 안 좋으니께네 야가 인자 없으면 아무것도 몬하는거라.

## 한번 실패했지만 다시 가정을 이루고 살고 싶어요.

결혼을 해가지고 참 실패를 했어요. 조금 가정상에 어려운 일이 있어 가지고, 좀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만 서로가 헤어졌어요. 내가 이래 혼자 상께네 재혼을 해가지고 여자를 하나 만나야 될낀데 그런 생각 할 때가 많죠. 그런 생각 하지도 않는다카면 거짓말이고. 한번씩 그런 생각 하기는 하죠. 혼자 외롭게 사니 서로 이렇게 만나서 사는 것도 좋은 일이지 않냐 싶은 마음이 들거든요. 마음을, 계획을 그쪽으로 해봐야지요.

재혼을 시킬라고 노력을 하고는 있지만은 참 마음대로 안되지. 처음 여자한테 마 질리가지고 또 재혼을 하는데 어떤 여자한테 아다리 될랑가 마 겁이 난다 항께네. 먼저 결혼한 여자가 나쁜 행동을 해가꼬 인자 며느리 볼라캐도 겁이 난다 항께. 도둑질을 해사서. 그래 그마 집을 잠시만 비워놓으면 훔쳐나가삐고 도망을 가삐고. 세 번까지는 우리가 용서를 해줬어요. 또 안 그런다캐서 데려다 노면 친정엄마랑 둘이 짜가지고 집에 통장같은 거 다 디비내고 도망가삐고 도망가삐고……. 그래 가지고 대개 참 골치를 많이 앓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있다가 마 이혼을 했지요.

## 합천종고 다니다가 중간에 중퇴했어요.

학교를 중간까지 다닝께네 만나면 서로 인사도 하고 같이 대화도 하고 하기는 하는데 동창회 같은 경우에는 그거는 하기는 좀 그렇고. 중학교, 초등학교 동창회가 있으면 참석을 하되, 합천종고 거기까지는 참석안하고 있거든요. 중학교까지는 모임을 하게 되면 가고 그렇게 생활하는 거지요. 친구들도 한번씩 만나고 살아가는 얘기도 하고 어울리면 좋죠. 같이 이렇게 만나면은.



## 환우회는 필요하다고 봐야죠.

원폭2세 환우들끼리 참 만나기 힘들거든요. 모이자 카면 한번씩 나가기나 할까 그 외에는 만나기는 힘들어요.

환우회에 나가면, 나 나쁜 생각은 안하고 뭐 서로가 몸이 아프니까 서로 불편없이 안 아프도록 잘 되기만을 저는 바라고. 아무 불편없이 잘 되기를 바라죠.

환우회는 필요하다고 봐야죠. 저 입장도 몸도 자주 아프고 하니까 나는 나쁘다 생각안하고 전부 다 안 아프고 아프지 않도록 지원을 받았으면 안 좋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지요.

형제들도 환우회에 나가는 걸 그렇게 나쁘다고는 생각안하죠. 서로 간에 잘 되라고 하는 일인데 싶어서 서로 간에 잘되기를 바라죠.

## 원폭2세환우회 회장 김형율씨에 대한 기억*

그 사람(김형율)하고 내가 맨 처음부터 만나가지고, 처음 부산에 몇 번 갔거든요. 부산서 두 사람이 만나가꼬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고 같이 잘 해보자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합천서 크게 사람 많이 늘어날 줄은 나는 생각도 못했거든요. 처음에는 둘이만 우찌 일이 잘 될랑가 그랬는데 그렇게 진행되어 왔는데. 형율이가 지금 이렇게 됐으니까 그게 좀 그렇고 그렇네요.

---

*최정식씨는 故김형율회장이 처음 환우회를 만들었을 때 최초로 가입한 회원이다.

아우 나 그 형제 너무 안됐어요, 진짜 안됐어. 참 불쌍해. 제일 처음에 일본에 대쪼(피폭자 건강수첩) 받으러 갈려고 그 형제 엄마하고 우리가 합천서 만났어요. 합천서 만났는데 그 형제가 엄마 따라 왔더라고. 엄마 따라 와가꼬 우리 아들을 만났어. 그때 그 형제도 몸이 안 좋다, 우리 아들도 몸이 안좋다 그래가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같이 하면서 그래 만나가꼬 그래 얘기 됐었어요.

### 약이라도 지어먹을 수 있도록 지원해 줬으면

지금 내 몸이 아프니까 정부에서 약이라도 지어 묵을 수 있도록 도움을 좀, 혜택이 좀 있으면 안 좋겠나 그렇거든요. 그래야 나도 좀 사람이 아플 때 짜증도 안나고 활동할 수 있도록 뭔가 이렇게 좀 지원을 받아가지고 약을 좀 지물(지어먹을) 수 있도록 좀 성과가 있으면 안 좋겠나 싶은 맘이 들어요. 어른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아무 불편없이 약값이라도 좀 어려울 때 도움을 주면 서로가 안 좋겠나. 그거 밖에 부탁드릴 게 없어요.

일본정부도 우리 한국의 원폭2세들한테도 좀 잘되도록 도와줬으면 좋겠다 싶어요. 부탁하고 싶은 거는 그거예요.

지금 특별법 만들자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게 잘 돼서 그렇게 해주면.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라죠. 특별법 통과되어서 1세, 2세 전부 다 혜택을 봐주고 조금 도움을 받았으면 안좋겠나…….

### 우리 아들이 아프니까 조금이라도 혜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그래, 이래 조사를 하면 2세들 앞으로 무슨 혜택을 보겠어요?



나는 마 죽을 나가(나이가) 됐응께 괜찮은데 막상 내가 죽고 나면 저 아들을 어떻게 하겠노? 재혼시킬라고 해도 마땅한 여자가 없제. 며느리감도 없제, 내가 막상 죽고 나면 저거를 어떻게 하꼬 싶어서. 아 그래서 정부에서라도 우리 아들을 무슨 혜택을 줬으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만 하고 있어요.

병원비 같은거나 혜택이나 좀 보고. 앞으로 병원비를 혜택을, 우신에 급한 거는 병원비를 혜택을 봐야지. 지금 현재 물질이 없응께네 병원도 맘대로 몬가잖아요. 잉께네 참 병원비나 좀 혜택을 보고 참 앞으로 그랬으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많지.

## 어머니 이일갑씨의 삶

### 우리 가족이 히로시마에 살게 된 이유는

인자 우리 아버지가 총각 때 그때가 열다섯 살 묵었을 때라고 하더나? 그때 일본에 갔더래요. 못 묵고 살아가꼬. 그래 일본서 내 있다가 우리 부친이 서른 살 무서 결혼했다 해요. 한국에 와가지고 우리 어무이랑 결혼해가지고 우리 어머니를 모시고 일본가서 살았대요. 그때 우리 딸 세 명, 아버지 어머니 다섯 식구 살았지.

우리 부친이 자전차 공장에 있었다캐. 우리 아버지가 자전차 해서 벌어가꼬 그래가 먹고 살고 그랬지. 우리 어무이는 아이스케키, 그거 만드는 공장에 쪼깸 벌었다카더나 뭐라카더나. 그래가꼬 내가 자꾸 따라가서 의자 앉아서 하드 그거 얻어물라꼬, 내 계속 의자에 걸터앉아서 그거 얻어먹을라꼬 암만 가라캐도 안 가더라요. 그거 한번 얻어먹고 올라꼬.

### 동생은 숯덩이처럼 온몸이 탔어요

내가 일곱 살때, 일본 히로시마에서 폭격 맞았어요. 아부지, 어무이도 폭격맞고. 서울에 있는 동생은 숯덩거리 맹쿠로 시커멓게 탔었어.

폭격 때릴 때는 아부지가 공장에 갈라고 세수를 하는데. 8시 10분 정도 돼서 나 그 뉴스하는 거는 똑똑히 알아요. 8시 10분 돼서 폭격 때린다 카더래요. 그래가꼬 얼굴 씻다가 막 폭격 때리는 바람에 놀라서 밖으로 뛰어 나갔어. 세수를 하다가 밖에 뛰나가는 바람에 좀 딨어. 나는 왼쪽 팔을 다 딨고 우리 서울에 있는 동생은 밖에 딱 대문열고 나갔는데 딱 고서 그만 불을 맞았는기라. 그래가꼬 완전히 탔어, 새카맣게 탔어. 여름에는 팬티만 입었는데 팬티 입은 고만 빼고 온 만신이 새카맣게 탔었어. 근데 어떻게 살았는가 살았어.

또 내 동생, 대구에 있는 셋째 동생은 집이 팍 내려앉았는데 우리 엄마, 아부지는 딸 서이 다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벽이 한군데 삐딱하게 있더래요. 그 밑에서 눈만 깜작깜작하고 있더래요, 가마이 누워서. 그래서 5명이 다 살았어.



### 한국으로 오기까지

난리나고 바로 한국으로 안 나오고 치료 다 받고 나왔어. 폭격 있고 나서 집이 다 무너져 내려서 산밑에 우리 아부지가 밭을 쳐가지고 고구마를 심었는데. 거다 포장집을 지어가꼬. 우리 전부 다 5명이 거기 살면서 치료도 받고 그랬어. 숯덩이처럼 시커멓게 탄 동생 몸에서 구더기가 몸에서 허옇게 다 나오고. 구더기가 몸에서 너무 많이 나왔어. 병원 채리놓고 일본사람들 모두 환자들 치료받는데 우리 어무이가 업고 댕기면서 치료를 받았어.

한국 나올 때는 우리 어무이는 한국 안나올려고 항께네, 우리 부친이 '나는 일본에 살기 싫다. 이렇게 우리가 피폭당하고 못산다. 우리 한국 나가야된다' 카면서, 그래도 어무이는 '일본에 더 살아보자' 그랬는데 우리 아버지가 꼭 한국에 나가자 카더래요. 그래서 한국에 나와가 부산에 살자 항께 부산도 안 살고 우짜든동 '시골로 가자, 고향에 가자' 하더래요. 고향이 합천 용주거든. 합천 용준데. 우짜든동 시골에 가자해가 시골에 살았어. 그래가꼬 우리 어무이가 죽도록까지 아부지를 원망을 하시더라고. 부산같은 데 앉아 있으면 될낀데 왜 해도 시골에 와서 살았냐. 그래서 원망을 그래 마이 했다요.

### 힘든 한국에서의 삶

한국에 와서 사는 건 너무 힘들었지. 못 묵고 살아가지고. 산에 뭐 심어가지고 먹고 살고. 굉장히 힘들었어. 너무 힘들었어.

너무 아무것도 없응께네. 우리 엄마 아부지가 딸 서이를 공부를 하나도 안 시켰어. 학교를 하나도 안 보냈어. 우리는 아무도 학교 문 앞에도 안 가봤어.

우리 어머니가 일본에서 딸 셋을 낳고 한국에 들어와서 또 딸 셋을 더 낳고. 우리 어머니가 여섯 명 놓고 아들을 낳았어요. 지금 사람들 같으면 그때 애기 못 놓지. 사십하나에 아들 하나 놓고. 딸 여섯명 놔 놓고, 아들 낳을 때까지 자꾸 낳는기라. 사십다섯에 또 막내아들 낳고. 엄마 아부지가 다 오래 살아계싱께네 손자들까지 다 보고 돌아가셨어요.

나는 열 일곱 살에 재취로 시집을 와가지고. 첫번째 마누라가 아들 하나 놓고 죽어삣어. 그래서 내가 재취로 시집왔다캉께네.

**돌아가신 부모님**

아부지하고 어무이 돌아가신 지 한 5년 정도 됐어요. 아버님, 어머님 한 해에 돌아가셨는데 뭐. 함 보자, 아버지가 9월달에 돌아가시고 엄마는 4월달에 돌아가시고.

돌아가시기 전 건강상태는 말도 몬했지. 너무 아파가 5년을 고생했어. 막 한 데 나오지도 못하고. 우리 어무이는 나오지도 못하고 방에서 내(계속) 병치레를 하고 그랬는데. 아버지도 인자 연세가 있고 항께 내 집에 들어앉아가 있었어. 돌아가실 때는 다 건강이 안 좋아가지고. 우리 어무이는 고상을…… 70 딱 들면서 그마 방에 들앉아가지고 노상 방에 들앉아있었잖아. 급해가지고 병원에 가가지고 병원 응급실에 있다가 집에 와서 돌아가셨어. 우리 부친도 합천 고려병원에 있다가 내가 병구완하고 있는데 집에 데려다 달라꼬 나를 막 패면서 '나를 집에 안 데려다 줄래' 해샀대. 그래 아버지가 집에 오면서 막 피를 토하더라고. '아버님 집에 가시면 돌아가십니다' 그래도 병원에 있응께 '나는 병원에 안 있을꺼다. 빨리 가자' 하대. 집에 와가꼬 '아이고 와 내 팔에 주사를 뺐노? 내 목이 말라 죽겠다 물 좀 줘' 하더만 마 까딱하며 가삐더라고. 아유 참나 내 그때 놀랐어예. 오만 얘기 다 하시고 그라더만 집에 와서 물 한 모금 도라카더만 물 잡숫고 까딱 돌아가시더라고.

아부님도 그렇고 어무님도 그렇고. 병원에서 치료 받다가 마 집에 막 오자 돌아가시고. 두 분 다 수술을 할라캐도 연세가 있어가꼬 수술 몬한다 카더라고. 우리 어무이는 심장이 마 이래 안 좋다카대, 심장이 안 좋고. 우리 부친은 자꾸 피를 쏟더라꼬. 그래 다 돌아가셨어.

우리 부친은 무슨 병인지 그것도 말도 안해주고. 우리 부친이 피를 막 쏟는데 무신 병인가 나도 물어보지도 않았어.

**허리가 아파서 수술한 뒤로는 오래 일하지도 못해**

나는 일본가서 척추 수술했어예. 허리가 안 좋아가. 지금도 일도 몬해 허리가 아파가.

수술받은 지가 지금 올해 만 3년. 수술받기 전에는 이래 마 허리가 아파, 다리가 아파 걸음을 몬 걸었어요. 걸음을 못 걷고 조금가다 서고 앉다가 가고 그랬는데. 그래 한국에서 치료를, 수술을 할라카다가 일본이 수술 잘한다사킬래 일본 시민병원에 가서. 히로시마서 또 치료를 받다가 시민병원으로 가서 수술했는기라. 그래 했는데 수술하고 낭께 다리는 마이 안 아파요, 다리가 저리기는 저리도. 그래 일본의사가 수술할라칼떠게 '다리 안 저리구로 수술 해돌라카믄 수술 몬합니다' 카더라꼬. 수술하기는 하는데 통증 안오구러 인자 수술을 하지, 다리 안 저리구러는 수술 할 수 없다 카더라고. 그래 마 우선에 다리가 저리든동 우짜든동 통증 안 아프구러만 해달라고 했는기라. 그래 아프지는 마이 안한데 일을 좀 하면 허리를 몬 쓰겠어. 허리 수술을 해노니께네.

무신 수술인고 뭐 한국사람한테 물었는기라, '무슨 수술했다 카던교?' 이러니께 일본의사가 하는 말이, 일본말로 통역하는 갑대. 그래 궁금해가꼬 가르켜돌라 하니께네 그거 알아서 뭐할라카나면서 안 아르켜 줘. '뭐 쇠를 해 넣었습니까? 수술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 내가 궁금하다 항께네 그거 알아서 뭐 할라냐면서 안 아르켜줘.

그때 수술로 갖다가 8시간을 했어요. 병원에 넉달 있으라 카는 거를 우리 아들이 한국에서 있으면서 다리를 뿔라가꼬. 내가 집에 전화를 해가 그 소리를 듣고 마음에 갈등이 있어가꼬 병원에 있지를 몬하겠는기라. 그래가꼬 치료를 받다가 두달 반만에 나왔어. 그래도 일하고 나면 마 집에 오면 눕기가 바쁘고 이래 앉아 있지를 못해.

**기침 때문에 고생하고 있어**

항상 위장이 안 좋고. 위가 안 좋아가지고. 그라고 일본가서 우째 감기 들은 거 맹크로 수술하고 난 뒤에 기침이 나기 시작하는데. 두달 반 동안 일본에서 최고 좋다카는 약을 써도 안 듣더라꼬. 그래가꼬 저거도 이래 마 노상 사진을 찍더라고, 찍으면서 이 병이 무신 병인지 모르겠다 카면서 그래가꼬 무슨 약을 쓰는데 그 약이 굉장히 독한가바요. 입으로 먹지도 못하고 이래 저 뭐꼬 푹푹 누지리는 거 입을 벌리라 캐가지고 폭폭 누지리면 약이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기계가 있더라꼬요. 그 약을 한달을 쓰니까 기침이 떨어지더라꼬. 내 고생 엄청했어요, 일본가서. 그래가지고 아무 것도 묵지도 몬하고 내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몰라. 기침을 해서. 기침 나도 그냥 마 이래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난다니까네. 아이고 얼마나 기침을 많이 났는가 몰라. 그 기운이 아직까지 있는가. 항상 이래 기침이 나고 이래뭐꼬 감기맹크로 해가지고. 내 고려병원에 일주일에 두 번씩 가요, 지금도. 일주일에 두 번씩 가고 링게르 맞고 주사를 맞고 약을 가지고 오고 그래요. 항상 기침약을 사다 놓고 있고. 그래도 나는 원폭피해자니까 병원비 부담이 없으니까 자주 병원도 다니고 하지.

최정식씨와 그의 어머니를 보고 있노라면 괜한 슬픔이 밀려왔다. 큰 욕심없이 그저 평범하고 건강하게 사는 것이 바라는 전부인데도 그 소망조차 쉽게 이룰 수 없는 현실이 안타까웠다. 아플 때 약이라도 사 먹을 수 있게 정부에서 약간의 지원이라도 해주었으면 좋겠다던 최정식씨의 말이 그의 집을 떠나는 길 내내 귓가에서 메아리쳤다.

# 2세 환우들에게도 1세분들과 똑같은 혜택을 줬으면 좋겠어요

한 정 순

6월 11일 아침, 동대구역에 도착했다. 성서공단행 시내버스를 타고 한정순씨를 찾아갔다. 언니집에서 살고 있는 한정순씨는 반갑게 조사자들을 맞이해 주었다. 모친(구선이)이 원폭피해자이며, 현재 합천 원폭피해자복지회관에서 생활하고 있다. 겉보기에는 건강해 보였으나 그녀는 이미 대퇴부 무혈성 괴사증으로 인공관절 수술을 두 번씩이나 했다고 한다. 지금은 어깨도 아파 수술을 해야 하는데 수술비가 부담스러워 선뜻 수술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결혼을 했으나 이혼했고 재혼을 했으나 다시 이혼했다. 건강하지 못해서 서러움도 많이 당했다고 하지만 시원하게 속 얘기를 다하지는 않았다. 첫 번째 결혼에서 두 아이를 낳았는데 첫째아이가 뇌성마비로 태어났다. 건강하지 못한 자신 때문에 아들이 장애아로 태어난 것 같아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다. 오래서서 일을 할 수도 없고 무거운 물건을 나르지도 못해서 다른 일자리를 구할 수 없어 조카의 어린 아이를 돌보며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다.

피폭 당시와 돌아가신 아버님에 대한 기억은 오빠 한종성씨의 증언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 생계 때문에 히로시마로 가셨던 부모님

히로시마에서 부모님 두 분 다 피폭당하셨어요. 그때가 엄마가 19세 내지 20세 정도 되었을 때였나? 아버님하고는 9년차 나니까. 삼촌분도 한가족으로 같이 거기 계셨는데 삼촌은 확연하게 발을 다쳤어요. 발 뒤꿈치가 없거든요.

아버지가 8형제인데 거의가 다 히로시마에 계셨고 피폭 당했습니다. 징용은 아니고 생계 때문에 가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피폭되셨지만 그 당시에 돌아가신 분은 없구요.

아버님은 제가 스물한 살 때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도 심장이 좀 안 좋아서 병원에 한 2개월 정도 입원한 적도 있어요. 어머니는 지금 원폭피해자 복지회관에 계세요. 회관 들어가신 지는 한 5년 됐는데 건강수첩 받으신 건 얼마 안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날짜는 확실히 모르겠네요. 삼촌도 지금 복지회관에 계시구요.

한정순씨의 오빠 : 할아버지 할머니도 그 당시에 일본에 계셨어요. 우리 아버지가 아들 8형제 중에 맏이입니다. 동생들하고 전부 다 일본에 다 있었는데 할아버지 할머니도 피폭당하시고 삼촌들도 많이 피폭당했지요. 피폭당하고 나서 해방되면서 할아버지가 전부 식구들 다 끌고 한국에 왔는데 제일 큰 형이 지금 올해 65살이니까 그 형도 그 당시에 태어나가지고 피폭을 당했어요. 삼촌들도 화상을 많이 입고. 큰삼촌은 얼굴이라든지 이런 데가 할랑 벗겨져가 일반 화상입은 환자들 얼굴 쭈글쭈글해져가지고 그런 상태로 화상을 입고 있다가 이 분도 암으로 사망하셨는데. 그 뿐만 아니라 좌우간 우리집안 다들 그랬던가봐요. 우리 종조부님, 종조모님도 일본에 같이 계시다가 그때 화상을 입고 나오셔가 종조모님은 얼마전에 돌아가셨어요. 지난 가을에 돌아가셨는데. 원폭피해자로 등록되어가지고 합천 복지회관에 계시다가 돌아가셨



습니다.

사실 우리 가족을 얘기하다보면 좀 그렇거든요. 우리 8남매 중에 위에 두 사람은 배가 달라요. 큰엄마한테서 누나 하나와 형이 태어나고 나서 큰엄마는 돌아가시고 엄마가 재처로 왔거든요. 일본에서 엄마가 공장생활하고 있을 때 재처로 와가지고 그때 있으면서 애기도 낳기 전에 아마 피폭을 당한 것 같아요. 아버지도 화상을 입고, 어머니는 그 당시에 화상보다는 폭풍에 의해서 집이 무너지면서 집에 깔려가지고 죽을 뻔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꼼짝도 못하고 누워있다가 허리도 부러지고 다쳐서 화상이나 이런 건 뒷전이었다고 해요, 너무 많이 다쳐가지고.

## 심장병으로 고생하셨던 아버지, 허리가 옆으로 굽은 어머니

우리 아버지도 협심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아버지가 그때 협심증이 처음 발병된지가 60되었을 땐데, 그때가 1977년 무렵이었는데 1979년도에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 건강상태가 안 좋았죠. 내가 그 당시에는 아버지가 심장병이라고만 얘기했는데 내가 그때 군복무중이었거든요. 내가 군복무중인데 아버지가 심장병이라고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그때부터 맘대로 기운을 못 쓴다고 그랬는데. 나는 그 당시에 심장병이 뭔지 몰랐고 지금와서 내가 협심증으로 고생을 하게 되고 내 위에 형님도 협심증으로 지금 수술하고 치료를 받고 있으니까 어머니도 잘 모르고 있으니 그때 너희 아버지와 같은 병이다 하시더라구요. 아파서 그렇게 고생을 하셨단 말이죠. 그것도 아마 아버지도 심장병이거나 협심증이거나 두 부류중의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 아버지가 입원, 치료를 대구 경북대학 병원에서 했습니다. 입

원해가지고 건강상태는 좀 괜찮았거든요. 투병생활하면서 약을 드시고 그때 시골에 계셨으니까 농사일하고 계시다가 그 뒤로 2년 후에 돌아가셨죠. 물론 사망원인은 발병된 원인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어쩌면 그 원인이 왔을 수도 있고. 그 당시의 원인을 지금 와서 물어볼 수는 없으니까. 협심증이 오면은 사실 협심증이라는 것은 그 내용은 알잖습니까? 심장혈관이 좁아지는 병이기 때문에, 그러면 숨이 가빠지고 폐가 안 좋으면 몸이 흔들리기 때문에 사실 몸 중심을 잡기가…… 지금도 내가 가다가 헛디디고 잘 넘어집니다. 감각이 좀 둔해지거나 하는데…… 그때 아버지가 자기 병을 생각안하고 논의 일을 하시다가 짐을 지고 엎어져 버렸거든요. 쓰러져가지고 그 짐에 깔려가지고 돌아가셨다구요. 엎어지면서 아마 목의 신경이 끊겨졌는가봐요. 그 길로 사망하셨는데. 평상시에 하던 일도 그 병이 있으면 평소 그 일을 하던 건강상태가 아니니까. 그렇게 봅니다. 정확하게 이거였다고 단정을 지을 수가 없으니까.

지금 엄마가 다른 데는 괜찮은데요, 한 20년 전부터 허리가 갑자기 안 좋아서 옆으로 완전히 굽었습니다. 특별하게 몸을 못 움직이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 외에는 건강하신 편인데. 거기가 좀 안 좋아요.

왜 그렇게 됐는지 정확하게 그 과정은 잘 모릅니다. 저도 살기가 너무 힘들고 그래서 두 번이나 결혼하고 그래서. 저도 저 나름대로 살기가 너무 힘이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질 않았어요. 나도 내 고통 내가 아프니까 처음에는 그런 줄도 몰랐는데.

### 건강하지 못한 형제들

원래 8남매인데, 위에 언니 한 분 돌아가시고 지금 7남매만 살아 있습니다. 다들 건강이 조금씩 좋지 않은데 크게 건강이 나쁜 사람이 3사람이구요. 위에 오빠 두 명이 협심증으로 수술을 받고 지금 투병생활하는 상태고, 저는 대퇴부 무혈성 괴사증으로 양쪽 다리를 다 의족을 해 넣었어요.

나머지도 조금씩 조금씩 건강상태는 안좋은데 그런 영향이 아닌가 싶어요. 첫째 언니는 그런 증세가 없는데 지금 둘째 언니가 피부병으로 고생하고 있거든요. 오래됐습니다. 오래됐는데 병원에 가도 확실한 병명이 없구요, 늘 피부병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혹시 그것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다른 피부병은 선천적이라든지 후천적이라든지 확실한 병명이 어떻게 해서 그렇다든지 알레르기면 알레르기, 습진이면 습진 확실한 병명이 있는데 병명이 없어요. 병명이 없고 약을 수없이 여기 약 저기 약을 먹어도 낫지를 않거든요. 낫지를 않고 병원에 가도 피부과를 가봐도 특별하게 병명이 없고. 셋째 언니도 저하고 마찬가지로 다리가 아파가지고 수술은 안했는데 되도록이면 수술안하고 참고 견뎌볼려고 하는 중이예요. 막내 남동생은 일찍부터 이가 다 빠져버리고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틀니를 해 넣은 상태예요. 남동생이 지금 45살이거든요. 마흔다섯인데 틀니를 했어요.

### 언니집에 얹혀 지내고 직업도 없어요.

이혼하고 아이들은 남편이 데리고 있구요, 저는 지금 언니집에 언니랑 결혼안한 조카하고 저 이렇게 삽니다. 형부는 일찍 돌아가셨어요. 지금 제가 언니한테 얹혀사는 입장이지요.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죠. 제가 특별하게 집이 있다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어요. 제가 수입이 없으니까 언니가 직장생활하고.

젊었을 때는 직장을 다녔지만 지금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몸이 이

렇다 보니까.

다른 일은 못하고 조카 애기 돌봐주고 있어요. 조카가 용돈 정도로 챙겨주죠. 한 달에 25만원요.

###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다리가 안 좋았어요

제가 33살에 수술을 받았는데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다리가 좀 안 좋았어요.

지금은 수술하고 난 다음에 다리가 저린 것처럼.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학교를 갔다 집에 오면 다리가 저리고. 뼈 속이 저리저리한 게 어떻게 말로서는 표현이 안 돼요. 그래서 늘 충격이 가도록 다리를 친다거나 하면 좀 나아지고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중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생활하면서부터 통증이 있었습니다. 크게 아픈 통증이라기보다는 저리다는 통증 그거였었고. 아픈 통증은 겪기는 제가 직장생활 하면서 좀 많이 다니고 직장생활하면서는 많이 다녀야 되니까 그때부터 있었습니다.

병원에 가도 그때만 해도 통증은 오지만 심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혹시나 해서 사진을 찍어 봐도 크게 병명이 없더라구요. 그래서 그냥 그냥 견디다가 관절이 안 좋으니까 관절약을 좀 먹었죠. 그래도 아무 소용이 없더라구요. 그러다가 결혼을 해서 결혼생활하면서 다리 아파가지고 병원갔을 때는 연골이 다 삭은 상태였어요. 그때 병원에 가니까 전라도 그 병원에 갔을 때에도 제 같은 이런 병은 50,60대 남자한테 많이 오는 병이지 여자한테는 그것도 30대 초반에 왔는지 알 수가 없다고 하더라구요. 왜 이런 병이 30대 초반의 여자한테 오는지 모르겠다고 하더라구요. 요즘에는 좀 많은데 그때 그 당시만 해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제 기억으로도 어렸을 때 부러지거나 기브스를 한 적이 한번도 없었거든요. 한 번도 없었는데. 그때만 해도 나무에서 떨어지거나 다친 경우가



많잖아요. 제 경우에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그래서 병원에도 가니까 어째서 이런 병이 왔느냐고 물으니까 나무에서 떨어지거나 그런 적이 있냐는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중간에 큰 충격이 가해지면 그 당시에는 모르지만 나중에라도 그럴 수 있다고요. 제 생각에는 그런 적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아주 어릴 때라고 하더라도 다리를 다쳐서 기브스를 한다거나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어요.

### 대퇴부 무혈성 괴사증으로 수술을 받고

처음에 제가 서대구 방사선과에 가서 사진을 찍어보니까 수술을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구요. 그게 서른 두 살 때였는가 봐요. 제가 서른 세 살에 처음 수술을 받았으니까. 그때 사진을 찍어보고. 늘 아프고. 연골 자체가 완전히 삭아 없어질 때까지는 잘 모른다고 그러더라구요. 사진 상으로도 잘 안 나타나고. 몸은 아프지만은 연골이 다 없어져가 원뼈하고 다 붙는 상태에서 그 병명이 나타나지.

요즘은 또 기술이. 그때까지만 해도 모든 게 의학적으로도 덜 돼서 그런지 몰라도 이 병원 저 병원 다녀도 잘 모르더라구요. 거기 가니까 심하게 아파서 일어서기 조차도 불편했을 때거든요. 그때 병원에 가니까 그렇게 얘기하더라구요.

수술을 양쪽을 두 번씩 했거든요. 1991년에 양쪽 다 하고. 한꺼번에 양쪽 다하면 걸을 수가 없으니까 한쪽 하고 좀 회복이 되면 다른 쪽을 수술하거든요. 두 번째 수술은 오른쪽을 많이 쓰니까 오른쪽은 좀 일찍 했습니다. 1999년도에 오른쪽 하고, 2003년도에 왼쪽 하고.

수술을 받아야된다고 해가지고 거의 바로 수술받은 셈이지요.

수술비용은 제가 그때는 수술비용이 그때 살기가 너무 힘이 들고. 애기도 그런 애기가 있었으니까 너무 힘이 들어서. 대구에서 수술을 받으려고

하니까 양쪽 다 할려고 하면 천만원 정도를 계산을 하더라구요. 저는 전라도까지 가서 전라도에 애향 재활병원이라도 있거든요. 거기에 가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부담이 조금 덜 되더라구요. 멀지만 연골수술도 잘한다고 그러고 그래서 대구에서 안하고 전라도 여천에 가서 수술 받았어요.

연골수술은 의료보험이 적용이 되는데요, 인공뼈 자체는 의료보험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전라도 가서 할 때는 대구보다 저렴하더라구요.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비용이 1/3 정도 밖에 안 들어요. 대구에서 1000만원 했는데 한 300만원 정도 밖에 안 들었죠 그때만 하더라도 제가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웠기 때문에 거리상으로 멀어도 거기로 갔죠.

다리는 많이 좋아졌죠. 처음 수술하기 전에는 걸음도 제대로 못 걷고 일어서고 앉고 이것조차도 힘들었거든요. 다니는 데는 크게 불편한 점은 없어도 앉아 있으면 다리가 저리고 많이 불편하죠.

연골수술이기 때문에 연골기구를 넣어서 연골수술을 받았기 때문에 특별히 치료를 받는다거나 하는 거는 없습니다. 생활하는데 좀 불편하다는 거지. 양쪽 다 두 번째 수술을 받고 오래 앉아있거나 그러면 저리고 많이 불편하죠.

그 외에도 제왕절개수술한 적 있고 자궁에 물혹이 생겨가지고 자궁수술도 한 적 있어요.

몸이 불편한 거는 3급이나 4급이나 마찬가지인데 차이가 있대요. 3급은 뭔가 외관상으로 봤을 때 장애자라는 게 드러날 때 3급이 되지만 우리같은 경우는 속으로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게 안된대요. 4급 장애예요. 4급 장애지만 고통은 너무 심해요. 4급 장애인은 수당은 없고 전화요금 혜택 정도만 있을 뿐이지.



## 어깨도 연골수술해야 한다고 하는데

중학교 졸업하고 섬유계통의 직장에서 일을 했는데 앉아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팔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너무 오래 앉아서 팔을 사용을 하니까 팔도 지금 아프고 병원에 가니까 팔도 연골수술을 해야 한대요. 그 정도래요. 수십 년 하던 사람도 그런 경우가 없는데 팔도 아프고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으니까 연골수술해야 한다 하고. 연골수술 자체가 저한테는 너무 스트레스예요. 연골수술 때문에 30대 초반부터, 결혼하고 나서부터도 제가 아픈 것 때문에 아픈 고통 때문에 설움도 많이 받고 그랬는데 이제 다리도 모자라서 팔까지 연골수술해야 된다고 하니까 너무 어이가 없어요.

어깨를 연골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경제적으로 제가 어렵고 하기 때문에 물리치료도 받고 해야 하는데 물리치료는 일시적인 치료밖에 안되는데 그것도 지금 받을 수 없는 입장이예요. 그래도 내가 내 가진 것 아무 것도 없이 내 형제한테 지금 이렇게 생활하는 것만으로도 짐이 된다는 생각하고 있는데 그 치료비까지 대 달라고는 얘기를 못하겠더라구요. 그래서 치료를 제대로 못받고 있습니다.

어깨 아픈지는 좀 됐거든요. 아파도 그냥 병원에 진통제 정도 먹고 했었는데 얼마전에는 종합적인 뼈에 대한 걸 상세하게 좀 진찰을 받아보고 싶어서 병명이 뭔지, 다리도 수술받았으니까. 진단받은 지는 몇 개월 됐습니다. 동네 개인병원 정형외과에 가니까 지금 연골이 많이 상했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면서 요즘엔 밤에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아파요. 그런데 물리치료를 몇 번 받아봤는데 그거는 일시적인 것 뿐이지 치료가 안되더라구요. 치료를 할려면 수술을 해야되지. 지금은 뭐 아프지만은 고통은 참고 견디고 있어요.

엄마한테도 아프다고 하는 얘기를…… 엄마도 저 다리아픈 거 때문에 따라다니면서 고생을 많이 하셨거든요. 또 그렇다 하면 잠도 못 주무시고

걱정하실 것 같아서 아직까지 연골수술해야 한다는 얘기까지는 못했어요. 팔이 아프다는 것 정도만 알고 있지 그러리라고는 모르고 계십니다. 함께 사는 언니는 수술해야 되는 거 알고 있지요.

### 1세보다 더한 고통

지금 와서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어릴 때 별나게 놀아가지고 다친 적이 있다거나 그러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전혀 그런 적이 없었기 때문에 더 원폭 피해자고 2세로서 그 영향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1세분들은 외관상으로, 저희 삼촌도 그렇더라구요. 외관상으로 발뒤꿈치가 없어요. 지금 합천 복지회관에 계시는데 피부가 그렇다는 그거지 크게 아픈 고통을 겪는다거나 그런 건 없더라구요. 엄마 역시도 허리는 휘어졌지만 고통은 우리가 더 심한 것 같더라구요. 제가 고통을 겪어 보니까 그렇더라구요. 그래서 그때 제가 TV보고 확실하게 이게 맞다 싶은 생각했을 때 생각해 봤어요. 물론 심하게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2세로서는 어릴 때부터 알게 모르게 고통겪는 그게 정말 힘들더라구요. 제가 합천에 가서도 보니까 1세분들 생활하는 거 가서 보니까 그래 아파가지고 못 견디고 우리처럼 병원에 입원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1세분들보다 2세들이 더 심한 것 같더라구요. 제가 그런 고통을 겪어왔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구요. 2세가 그 고통 자체가 그렇더라구요. 그냥 외관상으로는 1세 피부가 상처가 있다든가 그 정도지 그게 아파서 못견디겠다거나 그런 건 없더라구요. 2세들을 보면, 제가 연골수술을 받았지만 그 수술 받기 전까지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젊은 나이에 30대 초반에 앉아서 이렇게 밀고 다닐 때(앉아서 두 손바닥으로 몸을 밀고 다녔을 때를 재연해 주셨고, 그 당시 양 손바닥에 다 굳은살이 배겼었다고 함) 일어서지도 못할 때, 그때는 수술받기 전인데 밀고 다닐 때 그 때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



어요. 그때는 2세라는 말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은 안했는데 내가 왜 이런 병에 걸렸을까 그 생각만 했을 뿐이지 내가 2세로서 이 고통을 받는다는 생각은 전혀 안했어요. 그런데 TV를 보니까 가능한 얘기더라구요. 그래서 그렇다는 확신이 설 때는 너무 고통스럽더라구요. 고통받고 산 세월이 한 두해가 아니잖아요. 내가 한 두 번도 아니고 중학교 2학년때부터 15살때부터 아닙니까.

전혀 그 때문이라고는 생각도 못했지만 내가 고통을 느낀 거는 15살때부터였어요. 벌써 수십년의 고통을 겪으면서 내가 성장하고 어른이 되고 생활에 그만큼 어려움이 있으면서 아픈 고통까지 합쳐지니까 너무 힘이 들더라구요. 1세보다 2세가 더 고통이 심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요. 그럴 때는 일본 그 사람들은 자기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자꾸 무시할려고 하는데 우리가 고통받는데 대해서 내가 진짜 소리치고 싶은게 전혀 아무 보상도 안된 상태에서 혜택이라고는 아무 것도 없고 다 그 고통을 혼자서 이겨내야 한다고 할 적에 그때 인정도 못받고 인정도 못받으면서 이 고통을 받을 때는 정말 그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 순탄치 못했던 결혼생활

제가 처음에 혼인을 했다가 이혼을 하고 다시 재혼을 했다가 다시 또 이혼을 했거든요. 지금은 혼자 있습니다.

처음 남편과 결혼했을 때 애가 둘이 있었거든요. 큰 애가 지금 23살이인데 애가 뇌성마비로 아직 일어나지도 못하고 있어요.

제가 젊은 나이에 결혼하고도 애기들도 많이 어렸고 더더군다나 큰 애기가 뇌성마비로 고생을 하고 그러니까 그 애기 때문에 저는 제 몸을 돌볼 새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동생이 태어나니까 큰 애기는 누워서 생활하고 그 애기 때문에도 저 나름대로 아기 키울라고 하고 제 건강도 안 좋고 하

니까 저 나름대로 많이 고통스러웠죠.

이혼을 하게 된 이유는 게 건강도 안 좋고 애기도 그런 애기가 있으니까 남편도 생활하기가 많이 힘들었던 거 같아요. 집이라고 찾아오면 애기는 누워있고 작은 애기도 있고 어른도 모시고 있으면서 저까지도 그런 고통 속에서 언제 괜찮아질지도 모를 상태고. 그러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는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한테는 화풀이 아닌 화풀이를 하게 되고 저는 아픈 몸으로 그것까지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수술하고 얼마 안돼서 첫 번째 남편과 이혼했습니다. 그때가 34살 무렵이었어요. 이혼하면서 아이들은 아빠한테 다 가 있으니까 혼자 몸 그냥 지내는 거예요.

### 나 때문에 뇌성마비로 태어난 큰 아들

제가 생각할 때, 저는 2세지만 우리 아들을 생각하면 3세잖아요. 걔도 보면 저로 인해 그런 것 같아요. 아이를 낳을 때 순산하지 못하고 힘이 들었거든요. 애기가 나올 때 골반이 자연스럽지 못하니까 뇌에 충격을 받아서 문제가 생긴거 같아요.

84년도에 큰애를 낳았는데 제왕절개 수술을 할려고 하니까 수술비용이 큰 부담이 되더라구요. 그래서 조산소에서 자연분만으로 낳고 둘째는 의료보험혜택이 됐기 때문에 병원에서 제왕절개를 했습니다. 그때 병원에 가니까 첫애기를 자연분만했다고 하니까 원장선생님이 '아줌마 같은 경우는 자연분만이 불가능한데 자연분만 했다고 하니 이해가 안된다' 고 하더라구요. '첫아이가 건강상 아무 문제 없나?' 고 묻더라구요. 실제로는 뇌성마비로 그렇게 있었지만 건강이 괜찮다고 대답했어요. 하여튼 나오는 과정에서 뇌에 충격을 받아서 이상이 생긴 거 같아요. 처음 낳았을 때 애가 울지를 않았거든요. 양수물을 마시고 시간이 많이 길어지니까 조산소에서



도 나와야 될 시간은 지났고 양수도 다 빠져나왔는데 안에서 양수를 마셔가지고. 그래서 그런가 하는 생각을 해요. 그것도 두 번째 아이 낳을 때 병원에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내 건강에서 그렇다는 생각을 하게 됐죠.

아들을 만나지는 못하고 전화로 얘기는 하죠. 말도 제대로 못하거든요. 저는 몇마디씩 알아들을 수는 있어요. 저도 몸이 이렇다 보니까 지를 끝까지 보살펴주지 못하고 마음은 그래요. 거기는 1급 장애거든요. 뇌성마비니까 전혀 못 움직이니까. 그런 걸 생각할 때는, 저의 고통을 다 감수했지만은 3세인 아들까지 그런 경우가 있다고 생각할 적에는 그것도 다 나로인해 그렇다고 생각할 때는 진짜 좀 그래요.

### 중학교 졸업하고 섬유계통으로 일을 했죠.

생산직 계통 일을 제가 결혼할 때까지 했거든요. 생산직이라도 늘 서서 하는 일은 할 수 없어서 앉아서 하는 일이 있는데 그 일을 선택해서 했기 때문에 다리에 큰 무리가 안가는 일이었기 때문에 했습니다.

24살에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난 뒤에도 앉아서 하는 일이고 다리에 무리가 안 가는 일이기 때문에 한 몇 년 직장생활을 더 했습니다.

직장을 다니다가 일을 그만둔 이유는 앉아서 하는 일이라도 너무 오래 앉아서 하고 그러니까. 앉아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팔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팔을 사용하니까 너무 아파서 회사를 결국 그만뒀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팔도 연골수술해야 한다고 하니까. 다른 일은 할 수가 없고 집에서 아기 돌보는 정도. 아기가 자기 발로 걸어다니고 하니까 돌볼 수 있는 거예요. 보시다시피 아기가 좀 수월하니까.

## 힘들 때마다 의지가 되고 나를 지지해 주는 가족들

어머니와 사이는 좋은 편이예요. 자주 만나고. 복지회관에 계시지만 외출증만 있으면 엄마가 자주 나오세요. 여기도 왔다 가시고.

어머니는 제가 여러 번 수술 받고 경제적으로도 어렵게 사는 거에 대해서 가슴 아프게 생각하죠. 제가 지금 제일 큰 고통을 받고 있으니까. 늘 걱정이 그 걱정이예요. 누구 때문이라기 보다는 엄마 역시도 저를 이렇게 낳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겠지만 부모가 자식이 잘못 되고 그렇게 하는 사람 누구 있겠습니까? 제가 제일 고통을 받고 있으니까 엄마가 제일 가슴 아프게 생각하시죠.(울음)

엄마한테는 아플 때나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이런 얘기를 나누는 편이예요. 그런 얘기를 할 때는 서로 조금씩 조금씩 내가 만약 수술을 하게 되면 저보다 먼저 어머니가 나서서 형제들한테 수술비를 마련하고 그러시지요.

형제들과의 우애는 좋다고 생각해요. 서로 도와주고 서로 힘든 일 있으면 힘이 되어 주기도 하고. 서로 도와주고 그런 편이예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하나라도 나눠먹는 우리 형제들은 그런 입장이예요. 나보다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는 편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고통을 받으면서도 그런 힘이 없었더라면 지금의 내가 있었겠나 그런 생각도 하고 있어요.

## 나는 가족에게 짐스러운 사람

제가 우리 가족에게 짐이 된다는 그런 생각은 자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언니하고 같이 생활하고 있지만 언니한테도 언니 나름대로의 생활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짐이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제가 몸까지 아프고 자유롭지 못하니까. 내 생활을 내가 할 수 있으면 그런 생각도 안



하게 되지만은 지금 내 생활을, 내 앞으로의 생활도 내가 나이가 얼마 되지도 않는데도 아픈데도 너무 많고 이런 고통을 너무 많이 받고 있으니까 앞으로의 일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일을 다 내가 언니한테…… 내가 또 직계가족이 없기 때문에 언니한테 의지를 하게 되고 그러니까 늘 짐이 된다고 생각하죠. 아직까지는 내가 아기를 봐줄 입장은 되지만 몇 년 후를 생각할 때 내가 짐 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갈수록 나아지기보다는 팔까지 연골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니까 답답해요.

## 환우회가 좀 힘이 되어 주었으면

제가 고통을 받고 있으니까 뭔가를 형제들이 해줄 수 없는 일은 환우회에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다 자기 나름대로 생활이 있으니까 형제들이라고 해도 다 하나를 보고 할 수는 없거든요. 오빠도 그런 고통을 받고 큰 수술을 받았기 때문에 그 한사람을 위해서 그 한 사람을 내가 책임진다기 보다도 아무리 형제들이고 우애가 있다고 하더라도 각자의 생활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렵게 어렵게 힘들게 살고 있으니까 환우회가 좀 힘이 도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죠.

형율씨 살았을 때 연락을 해서 모인다고 하면 환우회 모임에 오는 정도였어요. 다른 환우분들 연락처도 모르는 상태고. 앞으로는 다른 2세 환우들과 교류하고 싶어요.

나는 나서고 싶어요. 저도 이런 고통을 받고 있으니까 그거를 100% 다 받을 수는 없더라도 어느 정도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라면 하고 싶어요.

우리 형제들은 환우회에서 연락오거나 할 때 꺼리거나 그런 게 전혀 그런 건 없었습니다. 고통 받았는데 비하면 그런 데도 나가서 소리치고 싶어요. 그런 일이라면 소리치고 싶은 심정이예요. 이 고통 속에서 많은 세월

을 보내면서 알게 모르게 울고 지낸 적도 참 많았어요. 그러기 때문에 소리치고 싶어요.

제가 생각할 때 대구분들도 몇 분 계시는데 우리 환우회도 우리 대구지역에 만이라도 뭔가 모임을 갖고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공간 그런 것도 좀 만들어지고. 고생하시는 분만 고생할 게 아니라 뭔가 우리도 말을 거들어가지고 도움이 된다면 모임이라도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예요.

환우분들과 교류하면서 마음적으로는 도움이 되죠. 앞으로 생활하는데 크게 보탬이 된 거는 아니지만서도. 그렇다고 해서 내가 꼭 그런 거를 바라는 것은 아니지만. 저도 뭔가 보상을 받아서 다른 일을 한다해도. 저는 진짜 그런 일이라면 나서고 싶어요.

특별하게 제가 뭐 어렸을 때 다른 잔병을 앓았거나 그런 게 잘 없거든요. 이 고통이 아니면은 내가 이 세상에 이렇게 천대를 받고 이렇게 뒷자리로 물러나 앉을 입장은 아닌데도. 이것 때문에 내가 물러나가 뒷자리를 차지하고 사람들 앞에 나서지 못한다고 할 적에는 너무 서러워요.

## 2세 환우로서의 바람

지금 저한테 제일 필요한 거는 경제적으로나 앞으로 내가 생활하면서 연골수술도 해야 된다고 하니까…… 경제적으로 제일 힘이 드니까 돈이죠.

한국정부는 제가 2세로서 고통 받는 그 마음이라도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조금 더 바란다면 우리가 이런 고통 속에서 지금은 뭔가를 움직일 수 있고 내 손으로 내 밥이라도 끓여먹을 수 있는 정도니까 괜찮은데. 세상을 살아가는데 죽고 사는 걸 맘대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사람 속에서 휩싸이지 못할 때에는 뭔가 혜택을 줬으면 그래도 앞으로 살아가는데 부유하게 살아가지는 못하더라도 생활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앞으로를 생각하면요, 지금 합천에 복지회관이 있잖아요? 거기 2세도 갈 수 있도록 그 정도라도 해주면 좋겠어요. 바램이라면 지금은 아니지만 1세분들 가시고 난 다음에 우리 2세들 혜택이 된다면 그 정도라도 해주면 좋겠어요.

지금 1세분들 못지않게 2세들도 고통받고 있으니까 뭔가를 우리도 그 고통에 대한 것을 인정해 주고 할 수 있는 데까지는 보조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 외 다른 거는 특별한 거는 뭐 모든 게 다 경제적인 거에 다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의 일에 대해서도 지금은 나이도 있고 몸도 움직일 수 있지만 형율씨는 저보다 더 심하지 않았습니까. 형율씨도 인정도 못받고 가셨지만 저 생각으로도 1세 못지 않게 고통을 받고 있으니까 그대로라도 보조를 해준다든지 책임을 져준다든지 해주면 좋겠습니다.

## 일본정부가 1세 분들과 똑같은 혜택을 우리에게 주었으면

우리도 1세분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처럼 똑같은 혜택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복지회관을 설립해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건강수첩이 있는 1세분들은 일본정부로 수당도 받으시잖아요. 그런 것도 똑같이, 지금 생활하고 있는 1세분들 생활하고 있는 것과 똑같이 2세들에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1세분들도 더한 고통도 있었겠지만. 2세들도 생각해보면, 제가 고통을 받는 걸 생각해보면 그 1세분들 못지않게 고통을 받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 인정은 안되지만 그런 분들 못지않게 고통받고 있잖아요. 오히려 그분들보다 더 설움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인정을 못 받으니까요. 1세분들은 직접적인 그거로 되어 있지만 2세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알게 모르게 힘을 쓰고 있는게 인정해 달라고 소리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고통

은 우리 2세가 더 고통이 심한 거 같아요.

###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부끄럽지는 않지만

장애있는 아들을 낳고 남편과 갈등은 많았죠. 갈등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걸 부끄럽게 생각할 게 아니고 세상사는 게 다 내만 이렇게 산다고 생각은 안하거든요. 그 나름대로의 고통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힘든 생활을 이때까지 아직까지도 내가 제대로 된 생활을 못하고 있지만. 엄마품 떠나고 나서는 제대로 된 생활을 한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걸 참 부끄럽다 생각했는데 지금은 부끄럽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나름대로는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뭔가 안 열리고 안 풀려서 그렇지 부끄럽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픈 고통도 나는 늘 고통이라는 게 내가 이겨내기 위해서 내 나름대로는 그 고통은 내가 견뎌낼 수 있기 때문에 이 고통을 준다 생각하고 참고 견뎌야 하겠다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부끄럽단 생각은 안하고. 앞으로도 그렇겠지만 그래도 쫌 인정을 해주고. 그래도 그 아픈 고통을 그 사람들이 대신해줄 수는 없어요. 그 아픈 고통은 내가 겪겠지만 거기에 보조해줄 수 있는 거는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아픈 고통을 대신해 줄 수가 없잖아요. 그 고통은 내가 겪어 나가겠지만 뭔가를 그 고통에서 마음이라도 좀 편하게 좀 보조라도 해줬으면 좋겠어요. 의료비라든지 모든 것 자기가 책임을 질 수 있는. 아픈 고통은 내가 지겠지만은 그 책임만큼은 그쪽에서 해줬으면 좋겠어요. 일본에서도 병원을 설립해준다든지 우리가 편하게 다닐 수 있게 해준다든지 그렇게라도 해줬으면 좋겠어요.



###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내가 지금 내 몸 상태를 생각하면 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내 생활을 할 적에는 내가 어떤 혜택을 준다면 그냥 앉아서 먹고 놀겠다는 생각은 전혀 없어요.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그냥 앉아서 마냥 세월만 보낼 게 아니고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하고 싶어요.

저는 봉사를 하고 싶어요. 어떤 특정 봉사라기보다는, 우리 큰 아기가 몸이 그렇고 제가 몸이 많이 불편하기 때문에 내 힘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한테 힘이 되어주고 싶어요.

하지만 지금은 전혀 못하고 있어요. 경제적인 것 때문에 그런 일을 할 여유가 없고.

# 목 · 소 · 리

## 한국원폭2세환우회 故김형율 회장과 환우회에 대한 기억들

# 증언록 발간에 부치는 글

강 주 성 (원포피해자 및 원폭2세환우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 건강세상네트워크 공동대표)

올해, 원폭이 투하된 지 60년이 되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원폭 문제를 60년간 기억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오히려 우리들은 그 문제를 60년간 잊고 있었다. 그 사이에 원폭피해자들은 가을날의 가랑잎처럼 모두 죽어갔다. '약이라도 주면 좋으련만' 이란 조그만 바람이 있었지만 그들은 약은커녕 자신의 고통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알지도 못한 채 그렇게 모두 떨어졌다. 60년을 말이다.

그러나 한국, 일본, 미국 정부는 모두 기다릴 것이다. 마지막 잎새가 떨어질 때까지 입을 다물고 기다릴 것이다. 모두 다 죽을 때까지, 그래서 원폭의 문제가 당대에서 끝나는 일이 되길, 그래서 자신들의 과오와 책임이 역사 속에 그대로 매장되길 기다릴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다. 이 원폭의 문제는 결코 끝낼 수 없는 것임을 말이다. 끝나서도 안 되고, 끝낼 수도 없으며, 끝나지도 않는 것임을 우리는 안다.

우리는 원폭 투하 60년이 되는 올해, 이 문제를 새롭게 역사 속에서 전진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원폭의 문제가 당대의 문제로서가 아니라 결코 잊어서는 안될 역사의 문제로 기억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한국원폭2세 환우회장 김형율 씨가 올해 숨졌다. 내가 그를 만난 건 2002년 백혈병 환자들과 글리벡 약가인하 투쟁을 하고 있던 어느 날이었다. 자신이 살면서 자신과 같은 병의 환자를 한 번도 만난 일이 없다던 그는, 나에게 찾아와서 원폭2세의 문제를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3년 전의 일이었다.

그러나 원폭2세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끝없이 아픈 몸을 이끌고 활동해 왔던 그는 죽었다. 폐기능의 1/4밖에 사용하지 못했던 그가 사실 이렇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이미 진작부터 예상하였던 일이다. 아무도 돌봐주지 않던 삶을 골방에서 끌고나와 고장난 폐와 35kg의 몸을 가지고, 자신과 집단의 문제를 이 사회에 당당히 던진 그 짧은 삶은 우리가 살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을 보여준 선지자의 목소리였다.

이제 원폭2세의 문제를 당사자의 입장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정말 그가 죽었을까? 이제 그 이야기를 할 사람이 정말 없을까? 아니다.

김형율 씨가 하늘나라로 돌아간 지 반년이 지난 지금, 그에 의해 원폭피해자와 원폭2세 환우들의 문제를 풀기 위해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가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고, 민주노동당 조승수 의원실에서 발의한 원폭피해자 지원 특별법이 국회 보건복지 상임위에 상정되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최근 특별법의 통과를 요구하며 국가인권위원회를 13일간 점거 농성하면서 원폭피해자 1세와 그 후대인 2세들이 자신의 문제를 다시 보고 있다는 것이다. 왜 이 문제가 몇 푼의 보상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일인지를 말이다. 자신들의 권리가 무엇이었는지를 말이다. 새로운 목소리가 들리고 새롭게 삶을 전진시키고자 하는 원폭2세 환우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올해는 중요한 해이다. 원폭 투하가 된 지 60년이 되는 해라는 의미보다도 더욱 중요한 것은 올해 이 역사적 피해자들이 스스로 역사의 앞에 나섰다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발간되는 이 증언록은 더 더욱 그 의미가 남다르고 소중하다.

이 증언록은 추후에 우리 후대들에게 평화와 인권을 교육하는 역사교과서로 인권교과서로 쓰여져야 한다. 이 피에 어린, 고통과 절규에 가득찬 그러나 애절하고 소박한 이 목소리들이 이제 죽지 않고 글자로 살아서 다시 다른 이의 마음속에 평화와 인권을 전하는 새로운 힘으로 전해지게 해야 한다.

"기록되지 않은 역사는 역사가 아니다"라는 말이 있다.

부끄럽게도 백성을 지켜야 할 우리 정부는 이 한을 기록하지 않았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증언록을 보면서 마음속에 이것을 기록해야 한다.

**마음과 정신 속에 기록되지 않은 역사는 전진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 기록을 위해 애쓰신 아시아평화인권연대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 이 글은 2005년 11월 22일에 작성한 글이다.



# 우리 아들 영혼이라도 위로할 수 있다면

김봉대(故김형율님의 아버지)

피폭자인 형율이의 어머니와 나는 슬하에 4남 2녀를 두었다. 형율이는 1970년 6월 25일 자정, 일란성 쌍둥이로 태어났다. 5분 뒤 태어난 동생은 생후 20일부터 열이 나서 병원을 드나들던 것이 3일을 멀다 하고 계속 병원치료를 받아야 했다. 회사에서 퇴근하면 아이들을 간호하느라 밤을 지새우는 날이 계속되었다. 그러나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1972년 2월 13일 새벽 2시 45분 형율이의 동생은 숨을 거두었다.

형율이도 자주 아파 병원생활을 하였다. 7살 되던 해, 유치원을 다니면서 계속 감기와 기침을 계속하였고, 1977년 초등학교에 입학한 후에도 급성폐렴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15일 동안 치료를 받고 퇴원하는 등 한 학기에 한번 내지 두 번씩 병원에 입원하는 생활이 계속되었다.

나는 퇴근할 때마다 하루도 빼놓지 않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과자며 과일을 사오곤 했다. 그러던 중 내가 하던 사업이 기울고, 형율이의 병원생활은 계속되어 하는 수 없이 살고 있던 2층 집을 팔아서 형율이의 병원비를 지불해야 했다.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입학했지만 장기간 병원에 입원하는 바람에 결국 고등학교를 중퇴할 수 밖에 없었다. 하는 수 없이 야학에 다니며 1년간 노력하여 검정고시에 합격해 대학에 입학하였다. 성치 않은 몸으로 아픔을 이기고 학업에 매진한 결과였다. 형율이는 어려서부터 무척 고집이 세어서 한번 한다면 꼭 실행에 옮기는 성격이었다. 집에서 학교까지

통학하기 힘들어 했으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학교를 졸업할 수 있었다. 졸업 후 몇 군데 직장을 구하여 출근했다가도 몸이 아파서 몇일 가지 못하고 사표를 낼 수 밖에 없었다.

형율이는 늘 다른 형제들은 건강한데 나만이 왜 몸이 아픈가 하고 고민도 많이 하였다. 나는 형율이가 실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때로는 위로도 하고 사정도 하였다. 형율이는 자신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할 때마다 몇백만원씩 나오는 병원비 때문에 부모와 형들에게 너무나 미안해했다. 나는 너 몸만 쾌유되면 돈이 무슨 걱정이겠느냐, 아무 걱정 말고 너 건강을 생각하여 노력하라고 하였다. 특히 형들에게 미안한 마음과 부담을 가지고 있어서 행여나 좌절할까봐 나는 늘 노심초사할 수 밖에 없었다.

2001년 다시 병원에 입원했을 때, 아주 우연한 기회로 형율이는 자신도 모르게 자신을 대상으로 연구논문이 발표된 것을 알게 되었다. 1995년, 본인과 가족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검사를 하여 내과학회지에 논문을 발표했다는 사실에 우리는 충격을 받았다. 논문은 형율이의 병이 모체유전에 의하여 생긴 병이라는 충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고, 형율이는 그때부터 자신의 병과 원인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하였다.

그 후, 형율이는 변하였다. 대학 도서관들을 찾아다니며 자신의 병과 방사능, 원폭 등에 관한 문헌들을 찾기 위하여 아픈 몸을 이끌고 다녔고, 자신의 삶 뿐만 아니라 다양한 원폭후유증으로 고통받는 다른 2세들의 문제, 국가의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원폭피해자 1세들의 문제까지 아울러 고민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2002년, 기자회견을 통해 형율이는 원폭2세 환우임을 커밍아웃하였다. 남들은 숨기기에 급급한데, 형율이는 이것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일본제국주의 식민지 정책에 의한 원폭후유증이란 것을 알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신을 비롯한 한



국의 원폭2세 환우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한국의 여러 시민사회단체들을 찾아서 호소하였다. 그렇게 형율이의 호소에 여러 단체들이 한국원폭2세환우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꾸렸고, 2003년 8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여 2004년 최초로 원폭피해자 1세 및 2세 환우에 대한 건강실태 조사가 실시되었다. 올해 국회에 입법발의된 '한국인 원자폭탄피해자 진상규명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도 형율이가 아픈 몸을 이끌고 서울과 부산, 합천 등지를 오간 노력의 소산이다.

형율이는 지난 3년간 그 누구도 걸어가지 않았던 험한 길을 외롭게 걸었다. 아픈 놈이 제 몸 하나 건사하기도 어려울 텐데 아파도 아프다고 말하지 못하는 원폭피해자들을 찾아 전국을 다녔다. 제대로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열심히 발버둥을 치니 부모된 처지에서 지난 3년간 나도 열심히 따라다니며 자식의 활동을 돕게 되었다.

형율이는 죽기 전 특별법을 통과시켜 원폭 피해자 1세 뿐 아니라 2세, 3세 환우들에게 법적으로 생활원호와 의료원호를 실시하고 더 이상 일본정부, 한국정부 어디에서도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한 채 참혹한 삶을 살아가는 원폭피해자가 없기를 소망했다. 주위에 형율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힘이 되어주고자 했던 분들이 많았기에 더 힘을 낼 수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더 열심히 자기 몸이 상하는 것도 모르고 그렇게 노력했는지도 모른다. 서울을, 평택을, 합천을, 부산을, 일본을…… 5월 한달을 뜨겁게 살았던 내 아들 형율이는 29일 아침, 갑자기 피를 토하며 숨을 거두었다.

올해 민주노동당 조승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별법이 통과되지 못해 두고두고 마음이 아프다. 나는 형율이가 뿌린 씨앗을 거두기 위해서 형율이가 이루려고 했던 특별법을 내 모든 것을 걸고라도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그 일만이 형율이가 가슴에 품고 간 원한을 풀 수 있는 길이고,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 원폭피해자는 죽음으로만 가야 하는가?

심진태(한국원폭피해자협회 합천지부장)

1910년 한일합방이 된 후 한국의 국가통치권은 일본에게 넘어갔다. 그 때 일제는 우리 조국의 국민들을 일본으로 강제 이주시켜서 험난한 노동에 투입하기 시작하였고, 2차 대전 전후에는 강제 징용을 하여 전쟁터에 동원시켰으며, 국내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과 유기 그릇 등 모든 생산품을 강제로 약탈하였을 뿐 아니라 어린 소녀까지도 군 위안부로 끌고 갔다. 이러한 군국주의의 침략에 수많은 우리나라 국민들은 험난한 작업장에서 일하다가 목숨마저 잃어야 했다. 그러자 1945년 8월 6일 8시 15분 미국은 일본의 군사기지인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투하하여 44만 명이란 인명 피해가 났고, 3일후 8월 9일 10시 2분 나가사키에 또 하나의 원자폭탄을 떨어뜨려 33만 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세계 인류 역사상 다시는 되풀이 되어서는 안될 엄청난 수의 사망자와 재산 피해 등이 발생한 것이다. 한국인의 피해자수도 10만 명이며 그 중 5만 명은 사망했고 4만 3천명은 귀국하고 7천명은 일본에 잔류하고 있다고 알려졌다(일본경보국자료). 그 가운데 귀국한 원자폭탄 피해자들은 생사를 몰라 기다리는 부모형제, 친인척과 상봉의 기쁨을 나눴으나 며칠이 지나지 않아 밥그릇 빼앗는 우환동포라는 명칭이 나돌기 시작했다.

원자폭탄피해자는 유전성이 된다고 하여 결혼 문제도 걸림돌이 되었던 것도 사실이고, 가난이 되풀이 되자 자녀 교육조차 시키지 못하여 자식들은 제대로 배우지도 못했으며, 이제는 세월이 흘러 죽음을 눈 앞에 두고 있으니 후손에게 물려줄 유산이라면 병과 가난뿐일 것이다. 지금도 2세, 3세 병들고 죽어가는 현실을 보면서 누구를 잡고 울고 하소연해야 할지.. 허공을 바라보며 생각만 반복하는 것이 피폭자의 현실이라 할 것이다. 이런 현실에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왜 없는가? 일본의 군국주의 침략자는 원폭 60년이 지났는데도 일본의 자국피폭자와 재외피폭자를 지금도 차별 대우를 하고 있다. 총과 칼을 들지 않은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반드시 보상하고 사죄해야 마땅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국가는 피폭자 국민에게 무엇을 생각했는지 지금까지 피폭자 실태조차 정확하게 파악한 사실도 없다. 더 이상 한국정부는 피폭자 문제를 뒤로 미뤄서는 안 될 것이다. 후세에게는 유전이란 문제를 숨겨두고, 한국 정부는 방치해두고, 일본 정부는 왜곡 또는 없애려하고, 살아있는 증인들은 병들어 죽어가는 현실을 잘 알면서 방치해서는 안 될 것이다. 피폭자도 국민이다. 국회는 하루속히 특별법을 만들어서 직접 피폭자와 피폭자 후세들에게 진료비 지원은 물론 생계유지비도 마련하여 병들어 쓸쓸히 죽어가는 피폭자의 심적 부담을 하루속히 치유해야 할 것이다. 특히 유념해야 할 것은 세계의 여러 나라 피폭자 수에서 일본을 제외하고는 한국 피폭자가 제일 많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정부와 국회가 주최국이 되어서 국회는 법안 처리를 신속히 하고, 정부는 60년 동안 방치하여 소외된 피폭자들에 대한 지원을 먼저 해야 할 것이다. 중국, 필리핀 등 피해국들이 이어서 법안이 처리 될 것이고 피해국들이 법안 처리가 되었을 시 비로소 일본도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루게 될 것이다. 일본에서 법안이 처리되면 재외 피폭자도 제외 할 수 없을 것이며 그 때는 사죄하고 보상할 것으로 믿어진다. 이러한 중대한 일들을 고령의 피폭자에게만 미룰 것

이 아니라 국가가 앞장서야 할 것이다. 우리 전쟁 피해자들은 거지가 아니라 국민의 권리를 찾자는 것이다. 어느 신문 방송에 들어보니 한국이 전 세계의 10여년에 해당 되는 경제국이라는 것을 들었다. 아무리 잘사는 나라라 할지라도 어둠 속에서 신음하는 국민을 소외 시킨다면 잘사는 국가라고 인정받지 못할 것으로 믿어진다. 원자폭탄 피해자들은 60년 동안 병고에 시달려 왔어도 가난 때문에 병원 진료도 제대로 받지 못했고 자녀들을 키우면서 병들어 죽고 기형이 생기고 고질병이 있어도 남이 알까 두려워서 감추면서 살아왔다.

60년이 흐르는 동안 피폭에 대한 것이 심상치 않다는 것은 알았지만 한국원폭피해자협회 합천지부장직을 맡으면서 크게 두 번 놀랐다. 2004년 어느 날, 보기에는 바싹 마른 젊은이 김형율씨가 사무실에 찾아와 원폭2세 환우회를 조직해야 하는데 협조해 달라며 도움을 요청했다. 이것은 우리 부모인 피폭자의 과실이다. 자기 몸도 가누기 힘들 만큼 아픈 자가 2세 환우조직 운운하는 것을 보고 정말 죄를 지은 마음으로 사과하였다. 1세들이 진작 활동을 했다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이것은 모두 활동을 제대로 못한 어른들의 잘못이라는 뜻으로 사과를 했다. 두 번째 놀랐을 때는 2세 환우 故김형율군의 끈질긴 투쟁과 공대위의 노력으로 역사상 처음으로 국가 인권위원회가 실시한 2세 환우 건강실태 조사결과를 보고서였다. 국가인권위원회의 발표 결과, 원폭2세 사망자 중 절반이 정확한 사인 없이 10세 미만에 사망했으며, 생존자들은 일반인에 비해 심장질환, 빈혈, 우울증 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가난과 질병에 시달려 온 원폭피해자들은 영원히 어둠 속으로 살아져야 하는지. 이런 사연들을 후손에게 유산으로 넘겨주어야 하는 현실 앞에 하늘을 우러러 통곡 하고 싶다.



# 故김형율형을 생각하며

조 석 현(한국원폭2세환우회를 지원하는 모임 회원,
주감초등학교교사)

2002년 8월 여름 어느 날이었던 것 같다.

범일동 현대백화점 뒷길에 있는 전교조 부산지부 사무실에서 형율 형을 처음 만났던 게…….

언뜻 처음 본 인상이 보통사람과는 달리 유난히 마른 편이었고 양쪽 볼은 푹 꺼져서 누가 보더라도 분명 건강이 좋지 않다는 걸 한 눈에 알 수 있었다. 게다가 더욱 이상한 점은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땀이 절로 나오는 8월 한여름의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그는 긴 팔 셔츠로도 모자라서 봄, 가을에나 걸칠 법한 점퍼를 한 벌 더 걸치고 있었다(하기야 2004년 겨울, 형이 객혈로 부산대학교 병원에 입원해 있을 당시 병문안을 갔다가 잠시 함께 찬바람을 쐬었던 게 원인이 되어 무려 1시간 여를 계속해서 기침을 해대는 통에 식은땀으로 흠뻑 젖은 그의 등짝을 손수 닦아보지 않았더라면 그가 왜 그런 날씨에도 점퍼를 걸쳐야만 했는지 결코 알 수 없었을 게다. 피골이 상접했다는 말을 절감할 수 있었으니까. 그땐 어찌나 미안했던지. 찬바람을 쐬게 해선 안 되는 건데……).

그리고 메고 다니기엔 정말 버거워 보였던 가방(이 가방은 이후로 내가 형을 만날 때마다 늘 함께 있었다). 형이 임종을 맞은 후에야 생각해보게 된 것이지만 늘 무거운 복사물들로 가득 차있던 형의 가방은, 그 무게는, 그동안 잊혀져 있던 한국원폭2세 환우들의 삶의 무게임과 동시에 놓치고 싶지 않은 질긴 삶의 끈 같은 것이 아니었나 생각된다.

그런데 그 가방 속에서 쏟아져 나오는 잊혀진 진실들의 무게는 실로 대단한 것이었다. 지금껏 내가 알지 못했던 원폭피해자들의 삶과 특히 현실에서 느끼는 2세 환우들의 이중고통(1세대들로부터 쏟아지던 형에 대한 경계와 제지, 가족들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고통 등 어찌 말로 다할 수 있을까)은 나약한 한 개인의 힘으로는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보이는 그 무엇이었다.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궁지에 몰린 사람을 향해 아무 보탬도 없이 그저 관심을 가져주는 정도로 생각하고 시작한 우리의 두번째 만남은 서면에 있는 실천무대라는 문화 공간으로 이어졌다. 당시 태평양전쟁유족회에서 최봉태 변호사와 함께 일제강점기 강제 동원 피해자들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전국을 도는 국토대장정 일행이 부산에 도착하여 극단 실천무대에서 형과 만나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던 모양이었다. 2002년 자신이 한국원폭피해자 2세 환우임을 커밍아웃한 이후로 그는 틈만 나면 자신과 같은 2세 환우들의 처지를 알리고 국가의 책임을 강조하고 다녔고, 이날도 자신과 같은 2세 환우들의 생존권을 위하여 이 분들의 법제정 노력에 자신과 같은 피해자에 대한 해결책도 포함시켜 보고자 하는 작은 몸짓이었던 게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8월 23일에는 형과 함께 대구에서 열리는 히로시마교조와 전교조 대구지부와의 교류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한국원폭2세 환우들의 문제에 대해서 발제를 하였다. 그리고 이 날 형으로부터 아오야기 준이치 선생을 소개받았다. 그는 독특한 전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형율형이 활동하는 동안 실로 많은 조언과 동행으로 도움을 주신 분이다.

이 날 저녁 우리 세 사람은 밀양에 있는 박광주 교수를 찾아갔다. 아오야기 선생의 소개로 인사를 나누게 되었는데, 다소 즉흥적이긴 했지만 이 날 우리는 형율형과 같은 한국원폭2세 환우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해보자고 의견을 모았고 '한국원폭2세 환우회'를 지원하는 모임을 꾸리기로 했다.

형은 늘 이런 식이었다. 무엇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알 수 없는 처지에서 힘닿는 대로 사람들을 만나왔고, 또 만나러 다녔으며, 심지어 일본사람들과의 의사소통을 위해서 시작한 일본어 공부를 하는 인터넷 카페의 모임에 나가서도 자신과 같은 한국원폭2세 환우들의 문제에 대해서 알려나갔다. 그런 수없는 만남을 통해서 그는 조금씩 무언가를 계획할 수 있게 되었고, 그 결과가 '한국의 히로시마' 라는 한 권의 책으로, 한국원폭2세 환우 공동대책위로, 한국원폭2세에 대한 국가인권위의 실사로, 나아가 한국원폭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대책 수립으로 나타날 수 있게 만들었다. 자신의 처지를 알리는 일이 결코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님을 알았기에 이미 예견된 임종의 시간 앞에서 그는 언제나 조급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하여 자신에게 주어진 생명의 시간과 맞바꿨던 그 열정 때문에 어쩌면 이미 의사가 예견한 시간보다도 훨씬 많은 시간을 한국원폭2세 환우들의 삶을 바꾸어 놓고자 하는 노력으로 채울 수 있었는지도 모른다.

어쩌다 지나다니게 되는 서면의 한 전통찻집앞 거리와 부산진역의 조그만 커피숍, 그리고 부산대학교 앞 곳곳에 묻어있는 형의 긴 한숨과 기침소리를 떠올리며 그의 임종이 남기고 간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본다.

"삶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그의 말처럼 결국 그의 삶은 이렇게 다른 이들의 더딘 발걸음으로 계속 되어지고 있지 않은가!

▮ 유고 ▮

# 한국원폭(原爆)2세환우(患友)란?

故김형율(한국원폭2세환우회 초대회장)

한국에는 원폭후유증을 앓고 있는 원폭(原爆)2세환우(患友)가 한국정부 발표에 의하면 2,300여명이 있다고 합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폭피해자 실태조사' 1991년].

한국원폭피해자들의 단체인 한국원폭피해자협회에는 원폭피해자1세대가 회원으로 2,200여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원폭피해자1세대의 자녀들인 원폭2세는 7천명에서 1만명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원폭2세들 중 원폭후유증을 앓고 있는 원폭(原爆)2세환우(患友)는 전체의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원폭2세들이지만 건강한 원폭2세들은 정상인들처럼 평범한 삶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다양한 원폭후유증을 앓고 있는 원폭(原爆)2세환우(患友)들은 평생을 질병과 장애로 죽음보다 더한 고통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국원폭(原爆)2세환우회(患友會)는 이와같이 원폭후유증을 앓고 있는 원폭(原爆)2세환우(患友)들에 대한 인간된 권리와 존엄성을 스스로 되찾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아울러 환우회(患友會)는 원폭(原爆)2세환우(患友)로서 존재할 수 밖에 없는 역사적 · 사회적인 필연의 관계와 모든 소외의 상황을 자각하면서 원폭(原爆)2세환우(患友) 모두가 서로 생명의 버팀목이 되어 원폭(原爆)2세환우(患友)들의 건강권과 생존권, 생명권까지 위협받고 있는 현실을 인식하고 국가권력에 의해 부당하게 인간성(人間性)과 정체성(正體性,Identity)을 부정당하고 있는 현실적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원폭(原爆)2세환우(患友)' 들은 다양한 질병과 장애로 정상적인 인간된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항상 건강과 미래에 대한 불안 속에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빈곤과 소외의 삶을 살아갈 수 밖에 없는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원폭후유증을 앓고 있는 원폭(原爆)2세환우(患友)들은 일본제국주의의 침략전쟁과 미국의 핵헤게모니전략에 의해서 존재할 수 밖에 없는 원폭피해자들입니다. 부당한 국가권력에 의해서 존재할 수 밖에 없는 원폭(原爆)2세환우(患友)들은 평생을 병마로 인해 인권이 유린된 삶을 살아가며 지난 60년동안 생존권과 생명권의 위협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원폭(原爆)2세환우(患友)' 는 부당한 국가권력에 의해서 존재할 수 밖에 없는 원폭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60년동안 다양한 질병과 장애로 인해 빈곤와 사회적 소외 속에서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보장받지 못한 채 사회의 약자로서 지난 60년동안 인권의 사각지대속에서 인간의 존엄성마저 부정당하여 왔습니다.

그것은 전체 한국원폭2세들 중 건강하지 못한 원폭(原爆)2세환우(患友)들과 건강한 원폭2세들이 놓여 있는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겪는 삶의 모습과 현실의 입장들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것입니다. 또한 이런 차이로 인해 현실을 인식하는 방법과 실천행위에 있어서도 뚜렷한 대비를 보이고 있습니다. 참혹한 자기 현실에 대한 '절박함' 속에서 살

아야 한다는, '생존'에 대한 자기 의지와 희망을 품고 살아가지 않으면 누구도 '원폭(原爆)2세환우(患友)'들의 삶을 지켜낼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매일 전쟁과도 같은 고통스러운 일상의 삶의 모습을 세상에 드러내지 않으면 누구도 매일매일 사멸해가는 '원폭(原爆)2세환우(患友)'들의 삶을 대신할 수 없으며 전쟁과도 같은 삶을, 인권이 유린되어 살아가도록 '강요'하는 국가권력의 부당한 폭력을 막을 수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원폭(原爆)2세환우(患友)분들은 다양한 질환을 앓으며 고통스럽게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무혈성괴사증', '다운증후군', '정신지체장애', '골다공증' 등 평생동안 병마에 의해 삶을 유린당해야 하는 현실을 그대로 짊어지기에는 원폭(原爆)2세환우(患友)라는 삶은 녹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원폭(原爆)2세환우(患友)들을 낳아 기르신 어머니들의 눈물과 한(恨)이 서려있습니다.

누구나 결혼하여 건강한 자식을 낳아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작은 소망일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천부(天賦)의 권리일 것입니다.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원폭피해자가 되어 건강하지 못한 자식을 두게 된 어머니에게는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죄아닌 죄의식으로 가족으로부터, 사회로부터 소외와 차별을 받으며 어머니로서, 여성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박탈당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다.

어머니 이전에 한 여성으로서 원폭(原爆)2세환우(患友)를 둔 현실은 참으로 감내하기 힘든 현실일 것입니다.

그 삶의 무게는 무엇으로도 표현하기 힘든 현실의 무게입니다.

그것은 혼자서 감내할 수 없는, 여성의 몸으로 원폭피해자라는, 원폭(原爆)2세환우(患友)를 둔 어머니로서 몇십년 동안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은



삶의 무게를 고스란히 떠안고 살아가지만 아무도 책임져주지 않은, 한 여성으로서 모성으로서 모든 권리를 박탈당하며 낮은 숨소리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왜 우리 어머니들은 어머니로서, 여성으로서의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죄아닌 죄의식 속에서 평생을 살아가야 하는지 이제는 국가와 사회가 그 물음에 답해야 할 것입니다.

더이상 국가와 사회는 원폭후유증을 앓고 있는 원폭(原爆)2세환우(患友)들과 원폭피해자 가족들의 삶을 외면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으로 태어나 인간답게 살고 싶은 것은 누구나 가지는 작은 희망일 것입니다. 최소한의 인간다움도 유지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많은 원폭(原爆)2세환우(患友)들과 원폭피해자가족들을 더 이상 방치한다는 것은 국가권력의 폭력이며 인권유린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제국주의의 침략전쟁범죄피해자이면서 핵피해자들인 원폭(原爆)2세환우(患友)와 원폭피해자가족들은 원폭피해자 문제가 결코 개인의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가와 사회는 개인의 문제로만 인식하도록 강요하여 원폭(原爆)2세환우(患友) 스스로 인간의 존엄성을 포기하거나 인간된 권리를 다 누리지 못하고 사회로부터 소외와 차별을 받으며 고통스러운 삶을 이어 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인간의 존엄성을 지니며,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원폭(原爆)2세환우회(患友會)는 이와같이 원폭피해자 문제를 오직 개인의 문제로만 강요하는 부당한 국가권력에 맞서 원폭후유증을 앓고 있는 한국원폭피해자와 원폭(原爆)2세환우(患友)들의 인권회복과 명예회복을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 故김형율씨의 사진모음

합천 해인사에서

2004년 12월, 병실에서

2004년 12월, 아버님과 함께

2005년 4월,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시위에서



# 故김형율씨의 사진모음

2005년 3월, 원폭2세 환우들과 함께

2005년 5월, 국회에서

2005년 5월, 원폭피해자 특별법
제정관련 설명회에서

2005년 5월, 일본 도쿄에서

▮후기▮

## 2세환우분들을 만나고 오던 길

신 명 기(아시아평화인권연대 자원활동가)

올해 여름은 참 더웠습니다. 합천, 대구, 진주, 마산, 통영, 부산, 울산…… 발걸음 닿는 곳마다 힘에 겨운 무게가 햇볕 속에 녹아내린 날들이었습니다.

쉽게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한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적어도 스스로 고통스럽다, 라고 느껴본 사람이라면 다른 이의 고통을 외면해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아픔인지, 왜 그토록 고통스러운지, 알려고 노력해야 할 최소한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길이었습니다. 길 위에서 한 사람씩 만나고 헤어질 때마다 휘청거린 기억이 선명합니다. 그 분들의 고통이 전해준 무게 때문이라기보다 그 무게에서 벗어나고픈 얄팍한 이기심 탓이라는 편이 정직할 겁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아픈 사람이 많은지, 한 사람 짧은 이름 앞에 따라붙는 병명들은 또 왜 이렇게 긴 건지, 혼자 아픈 것도 아니고 아버지, 어머니, 형제들, 그리고 자신의 몸으로 낳은 아이들…… 나이 들어 아픈 것도 아니고 스물부터, 어려서부터, '항상 아팠어요'. 치료비라도 넉넉하면 그렇구나 하고 넘어갈텐데 약속이나 한 듯이 돈 때문에 내 몸 아픈 걸 가족에게 미안해해야 하는 사연들. 분노, 울음, 절망, 체념……

모두가 피폭을 말하고 모두가 유전을 말하고 모두가 보상과 대책을 말하는데, 때론 누군가의 멱살을 잡듯 항의하던 그 목소리들 앞에서, 저희는



단지 증언을 들을 뿐 당신이 옳다고 말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런 말을 할 수 없어 침묵해버린 적이 많았습니다.

감히 공감할 수도, 그렇다고 그저 들을 수도 없는 매번의 인터뷰가 부담스러워 도망이라도 가고 싶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발길을 붙잡은 것은 보고 듣지 못하는 아들을 대신해 인터뷰에 응하신 한 어머니의 절규였습니다.

"와 그럴꼬요? 자식이 많도 안한데 모두 병신이네요. 하나라도 성해야지. 내 원을 못 풀어 한이 맺히네. 와 그럴꼬요!"

인터뷰 내내 홧병을 앓는 사람처럼 소리를 질러가며 말씀하신 어머니의 눈은 그러나 울 수조차 없는 슬픔이었습니다. 그래서, '와 그럴꼬요' 라는 물음이 언제고 뒤통수를 따라다니는 것만 같아서, 똑같은 의문을 가슴에 품고 살 사람들을 찾아가는 발걸음을 돌릴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모두 한때 다른 인간의 몸을 빌어 숨쉬었기에 사람은 누구나 존귀하다던 말을 떠올립니다. 그 '존귀한 일' 이 '환우 2세' 라는 낙인으로 몸과 마음에 벌겋게 남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사랑하여 낳은 아이를 바라보면서 '환우 3세' 의 대물림이란 두려움에 떨어야하는 삶에 대해 들었습니다.

그 많은 불행들이 과연 공통된 한 가지 원인에서 비롯된 것인지는 지금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공통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그토록 불행하다면, 그 불행의 원인은 보다 심각하게 고민되어야 합니다.

한 마디 한 마디 쉽지 않은 이야기를 꺼내주신 환우 분들의 용기가 결코 헛되지 않기를, 원폭의 역사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한 한국과 일본사회에서 더 많은 사람이 그 용기에 응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 참 · 고 · 자 · 료

한국인 원자폭탄피해자 진상규명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 한국인 원자폭탄피해자 진상규명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조승수의원 대표발의)

| 의안 번호 | 2353 |
|---|---|

발의연월일 : 2005. 8. 4.
발 의 자 : 조승수 · 강기갑 · 강창일 권영길 · 김원웅 · 김춘진 노회찬 · 단병호 · 박재완 배일도 · 신기남 · 심상정 안상수 · 엄호성 · 이광철 이영순 · 이원영 · 이재오 이혜훈 · 최순영 · 최재성 천영세 · 현애자 의원 (23인)

### 제안이유

해방 60주년이 되는 올해는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각각 원자폭탄이 투하된 지 60년이 되는 해이기도 함. 그러나 지난 60년간 한국 정부는 원자폭탄 피해자에 대한 지원은 고사하고, 정확한 실태조사조차 제대로 진행하지 않은 채 방치해 왔음. 정부의 무관심 속에 원자폭탄 피해자 1세대 거의 대부분은 후유증과 가난 속에서 죽음에 이르렀고, 그 고통은 후대에 전가되어 원폭 2세와 3세들의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음. 이런 상황에서 이들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와 그 자녀의 규모와 건강상태 등에 대한 정확한 진상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60년간 질병과 가난의 대물림 속에서 고통 받아 온 이들 원자폭탄 피해자와 그 자녀에 대한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의료지원 및 생계지원 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원자폭탄 피해자의 진상을 규명하고 의료생활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원자폭탄피해자지원위원회"를 설치함(안 제3조).

나.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둠(안 제8조).

다. 원자폭탄에 의하여 부상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피해자와 그 자녀에 대하여 의료지원을 실시함(안 제12조).

라. 원자폭탄 피해자와 그 자녀는 연 1회의 일반검사와 정밀 · 암 검사를 무료로 실시함 (안 제13조).

마. 원자폭탄 피해자와 그 자녀에게 건강상태와 생활여건을 고려하여 중복되지 않게 특별수당, 보건수당, 생활수당 등을 지급함(안 제16조).

바. 원자폭탄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150만원의 장제비를 지급함(안 제17조).

사. 1945년 히로시마와 나가사끼에 투하된 원자폭탄에 의해 피해를 당한 한국인 피해자의 진상 조사를 실시함(안 제22조).

아. 원자폭탄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인권과 평화를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념사업을 시행함(안 제23조).

법률 제 호

# 한국인 원자폭탄피해자 진상규명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1945년 8월 6일 일본의 히로시마와 동년 동월 9일 나가사끼에 투하된 원자폭탄에 의하여 피해를 당한 자와 그 자녀 등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의료 및 생활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생존권과 인권을 보장하고 명예를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피해자"라 함은 원자폭탄이 투하된 때 히로시마 및 나가사끼 시내 또는 인근 지역에서 직접 피폭된 사람, 투하 직후 2주 이내에 투하 지역 2km 이내에 들어간 사람, 사체 처리 및 구호에 종사한 자 등 원자폭탄 투하된 때 또는 그 후에 신체에 원자 폭탄의 방사능 영향을 받은 사람, 앞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의 태아인 사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피해자 자녀"라 함은 원자폭탄에 직접 피폭되지 않았으나 부 · 모 또는 조부 · 모 등 직계존속 중 어느 한쪽이 원자폭탄 피해자인 경우를 말한다.



3. "유족"이라 함은 피해자의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다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 제2장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3조 [원자폭탄피해자지원위원회의 설치]**

원자폭탄 피해자의 진상을 규명하고 의료 생활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원자폭탄피해자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 [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위원회의 목적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의사 · 평화운동가 · 인권운동가와 원자폭탄피해자 단체, 관계 부처 공무원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한다. 다만, 위원회 위원의 50퍼센트 이상을 민간추천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30퍼센트 이상을 여성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임기 중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국무총리는 임기만료 및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⑤결원이 된 위원의 후임으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제5조 [위원회의 업무]**

위원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1. 원자폭탄 투하 당시 피해자 실태 및 규모 등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사항
2. 원자폭탄 피해자와 피해자 자녀의 건강 및 생활 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

3. 피해자 및 피해자 자녀, 유족 여부에 관한 심사 · 결정
4. 피해자 및 피해자 자녀, 유족의 의료 및 생활 지원 등에 관한 사항
5. 의료사업, 기념사업, 성금모금 등 피해자 인권 보장 및 명예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6.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6조 [위원회의 의결]**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①위원은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②위원은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업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및 형의 선고확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제8조 [위원의 결격사유]**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된 자

②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제9조 [사무국의 설치]**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인과 그 밖의 필요한 직원을 둔다. 다만 사무국장은 민간에서 추천하는 민간이어야 한다.



③사무국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임명하고 소속 직원은 사무국장의 제청으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④사무국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 · 감독한다.

**제10조 [신청 등]**

①피해자 및 피해자 자녀로서 이 법에 의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무국이나 시 · 군 · 구 단위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한 지원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피해자,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 또는 진술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조사 등을 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지원 여부를 심사 · 결정하여야 하며 10일 이내에 결정내용을 신청인에게 상당한 방법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④위원회는 신청자가 피해자, 피해자 자녀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 [재심]**

①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자는 결정내용을 고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심의에 관하여는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3장 의료지원

**제12조 [의료지원]**

보건복지부장관은 원자폭탄의 상해작용에 기인하여 부상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실제로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태에 있는 피해자와 피해자 자녀에 대하여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필요한 치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지원을 실시한다.

**제13조 [의료지원의 종류]**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해자 및 피해자 자녀로 인정받아 증서를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연 1회의 일반검사와 정밀 · 암 검사를 무료로 실시한다. 다만, 정밀 · 암 검사는 일반검사 후 의사의 필요에 의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해자 및 피해자 자녀로 인정받아 증서를 교부받은 자가 부상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를 받았을 경우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일시에 지급한다. 다만, 고의의 범죄행위 또는 고의로 부상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수술비
2. 진찰 · 검사비
3. 입원비
4. 약제비
5. 보호 · 보장구 구입비
6. 간병인 비용
7. 이송 · 통원치료 교통비

**제14조 [의료지원비 지급]**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와 의료지원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 [의료기관 지정 등]**

①위원회는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를 담당하는 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정부와 협의하여 원자폭탄에 의한 질병의 전문적인 치료를 위하여 국립원자폭탄전문병원과 전문요양기관을 설립하여야 한다.

## 제4장 생활지원

**제16조 [수당]**

①보건복지부장관은 피해자 및 피해자 자녀에게 건강상태와 생활여건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당을 월액으로 지급하되, 서로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특별수당 : 의사의 필요에 의한 제13조제1항의 정밀 · 암 검사를 받는 질병이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원자폭탄 피해자 및 피해자 자녀
2. 보건수당 : 정기적인 건강진단과 꾸준한 건강관리가 필요한 원자폭탄 피해자 및 피해자 자녀
3. 생활수당 : 원자폭탄 후유증 등의 질병과 장애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어려운 원자폭탄 피해자 및 피해자 자녀

②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수당의 지급액은 매년 최저생계비와 물가변동률 등을 고려하여 정하고, 지급방법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 [장제비 지원]**

보건복지부장관은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장제비 150만원을 지급한다.

**제18조 [복지사업 등]**

위원회는 피해자의 심신 건강에 대한 상담, 거택에 있어서의 일상생활에 관한 상담, 그 밖의 상담을 응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제19조 [수송시설의 이용 지원]**

①국가는 피해자 및 피해자의 자녀에 대하여 이들이 다른 사람의 보호가 필요하여 이들을 직접 보호하여 수송시설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의 수송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1항의 수송시설 외의 수송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 [주택의 우선분양]**

①피해자, 피해자 자녀 또는 유족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또는 국가의 융자에 의하여 건립되는 주택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하여 입주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받은 주택은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기간 이를 타인에게 매매 · 증여 · 임대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상속 · 저당의 경우를 제외한다)를 할 수 없다.

**제21조 [고궁 등의 이용지원]**

피해자, 피해자 자녀 및 유족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 및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



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 제5장 진상조사 및 기념사업

**제22조 [진상조사 []**

위원회는 1945년 8월 6일 일본의 히로시마, 동년 동월 9일 나가사끼에 투하된 원자폭탄에 의해 피해를 당한 한국인 피해자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진상조사 및 연구사업을 하여야 한다.

1. 1945년 원자폭탄 투하 당시 한국 피해자의 규모 및 실태 조사
2. 현재 생존한 피해자 및 피해자 자녀의 규모 및 실태 조사
3. 피해자 및 피해자 자녀의 인구, 사회, 경제적 상태 및 건강 등 의료실태 파악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23조 [명예회복 및 기념사업]**

국가는 원자폭탄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추모하며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 이와 같은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고 인권과 평화를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며 이에 대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1. 위령 공간(위령 묘역, 위령탑, 위령공원 등) 조성
2. 원자폭탄 · 탈핵 · 평화박물관 건립 및 역사 · 평화 · 인권교육 등의 사업 지원
3. 그 밖에 필요한 사업

## 제6장 보칙

**제24조 [권리의 보호]**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 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제25조 [조세의 면제]**

생활지원금 등에 대하여는 국세 및 지방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26조 [의료지원금 등의 환수]**

①이 법에 의한 의료지원금 등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 등의 지급을 받은 경우
2. 잘못 지급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은 지원금 등을 반납할 자가 기한 이내에 해당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27조 [사실조사 및 협조의무]**

①위원회는 이 법에 의한 지원 등을 위하여 신청인,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 또는 진술을 청취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증 또는 필요한 조사 등을 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조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이나 단체는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이를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28조 [위원회와 다른 기관의 협력]**

①위원회는 그 업무 수행의 내용과 절차 및 결과에 대하여 피해자 단체 또는 민간단체의 자문 및 의견을 구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업무 중 일부를 특정하여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 및 민간단체나 전문가에게 위임하여 수행하거나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③그 밖에 제1항 및 제2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29조 [공무원의 파견요청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 및 이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파견 요청 등을 받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은 그 소속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독립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을 파견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회에 파견된 자에 대하여 인사상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0조 [유사명칭 사용의 금지]**

위원회가 아닌 자는 원자폭탄한국피해자지원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31조 [비밀누설의 금지]**

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는 업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2조 [자격사칭의 금지]**

누구든지 위원회 위원 또는 직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3조 [성금모금]**

위원회는 피해자 등에 대한 지원금 및 관련 사업의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성금을 모금할 수 있으며 성금모금은 ?기부금품모집 규제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허

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4조 [벌칙 등]**

①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의한 지원을 받거나 지원을 받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30조, 제31조, 제32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③제1항의 미수범은 이를 처벌한다.

##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 의한 피해자, 피해자 자녀 및 유족 등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 등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의 소득에서 제외하며 타 법률에 의한 지원에 관계없이 이 법에 의한 지원금이나 지원사업은 시행한다.

## 단 · 체 · 소 · 개

- 한국원폭2세환우회
- 한국원폭피해자 및 원폭2세환우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 아시아평화인권연대

## 한국원폭2세환우회

한국원폭2세환우회는 지난 2002년 故김형율 회장이 스스로 원폭2세 환우임을 커밍아웃한 후 원폭후유증으로 의심되는 다양한 질환을 앓고 있는 한국의 원폭2세 환우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조직이다. 한국원폭2세환우회는 2003년 6월,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를 아울러 원폭2세환우문제해결을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이후 국가인권위원위원회에 진정, 국가인권위원회의 실태조사 등을 견인해 내었으며, 2005년 5월 故김형율 회장의 청원서와 함께 '한국인 원자폭탄피해자 진상규명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 발의되었다.

초대회장 김형율씨의 사망 후, 7월 합천에서 열린 한국원폭2세환우회 모임을 거쳐 2대 회장으로 정숙희씨를 추대하였다. 지난 10월 말부터 국가인권위원회를 점거하여 특별법 통과를 위한 농성을 진행하는 등 계속해서 원폭2세 환우들의 인권보호와 생존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홈페이지 http://cafe.daum.net/KABV2PO

## 원폭피해자 및 원폭2세 환우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원폭피해자 및 원폭2세 환우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지난 2003년 8월 결성되어 한국원폭2세환우회와 함께 원폭2세 환우 문제를 한국사회에 알리고 다양한 질병과 사회적 차별로 고통받는 원폭2세 환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03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성서 접수를 시작으로, 2004년 원폭피해자 건강실태조사 수행, 2005년에는 원폭피해자 문제해결을 위한 입법 청원 기자회견, 평화의 종이학 대장정, 원자폭탄 피해자 증언대회, 원폭피해자의 아픔과 함께하는 시민문화제 개최, 국가인권위원회 점거 농성 등 원폭피해자와 원폭2세 환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공대위는 2005년 5월 원폭피해 당사자를 포함해 조직을 확대개편하면서 현재 15개 단체가 함께 활동하고 있다.



## 아시아평화인권연대

아시아평화인권연대는 한국사회가 인권과 평화를 위한 넓은 시야와 인간과 자연에 대한 깊은 애정을 안고 올바른 인식과 실천이 필요하다는 것에 뜻을 모으고, 이를 실천의 장으로 옮기고자 설립한 단체이다. 아시아평화인권연대는 전쟁 없는 평화로운 사회, 차별없는 평등한 사회, 어린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사회, 기아와 문맹으로부터 벗어나는 사회,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지향한다.

아시아평화인권연대는 '어린이에게 희망을' 캠페인을 통해서 아프간 난민캠프의 어린이 학교 지원(2002~2004), 아프간 귀환난민 지원(2005~), 한국에 이주노동자로 왔다 사망한 두 파키스탄 가족의 자녀학비 지원 등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 한국의 이주민(이주노동자, 국제결혼한 다문화가족 주부, 유학생)과 함께 '아시아와 친구하기'란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이주노동자의 인권, 아시아 각국의 사회와 문화, 전쟁과 어린이를 주제로 직접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수능시험을 마친 고3 수험생들을 위한 '평화와 인권' 강좌는 부산지역의 NGO들과 함께 준비하여 아프간 난민의 삶을 통해 본 전쟁과 평화의 의미, 한국사회의 소외된 이웃의 인권 문제를 고민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있다.